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2015년 1월호

리아호나

에즈라와
플로라 벤슨:
주님의 사업에서
하나가 된
두 사람, 32쪽

구주와 같은 교사가
되는 법을 배우라, 24쪽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56쪽

작은 도움, 큰 차이, 64쪽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누가복음 14:34

왼쪽 사진: 겨울 새벽에 보는
사해의 아인 제디 해변. 앞에
소금이 보인다.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선지자를 따르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순종하는
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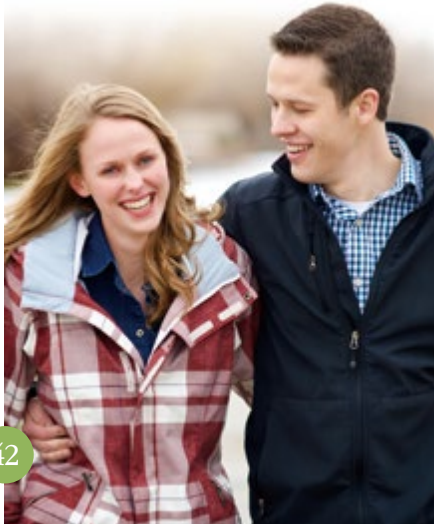
특집 기사

- 18**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러셀 엠 넬슨 장로
삶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반드시 옳은 선택을
하십시오.
- 24** 어떠한 교사가 되어야 마땅할까요?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구주는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의 가장
좋은 모범입니다.
- 28** 선지자의 권고와 성전 축복
고이치 아오야기 장로
선지자를 따르며 성전 예배를
최우선에 둔다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깃들 것입니다.
- 32** 플로라와 나: 주님의 사업에
함께하는 동등한 동반자
애런 엘 웨스트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아낌없이
서로를 지지했던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과 아내 플로라 벤슨
자매의 결혼 생활이 제13대 교회
회장으로서의 부름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알아본다.

교회 본부 기사

- 8** 10월 연차 대회 노트
- 10**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분과 함께 깨어 있을 시간
마리차 곤잘레스 에스페호
- 12**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영원한 가족으로 가는 길
가스 햄블린, 샌디 햄블린
- 14** 단상: 반딧불이
데이비드 라이트
- 15** 교회에서 봉사하며:
감자 선물을 받은 선생님
보니 달스러드
- 16** 교회 소식
- 38** 후기 성도의 소리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해롤드 비 리 회장

표지
앞쪽 사진: 교회 역사 박물관의 허락을 받아
게재함. 안쪽 사진: 질레드 메스



42

42 자주 함께 모일지마: 부부 간의 가족 평의회
니콜 에크
가족 평의회를 의미 있게, 성공적으로 시작하는 법.

46 결혼할 용기
크리스티안 헤글룬트
다음 순서는 결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싶었다.



50

48 2015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본부 청남 청년 회장단
올해 상호 향상 모임 주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훌륭히 섬기는 법을 이해할 수 있다.

50 한 번에 한 걸음씩
힐러리 올슨
이탈리아의 청소년들이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법을 이야기한다.

53 너희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올해 상호 향상 주제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55 포스터: 나서라


56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이유
구주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신 다섯 가지 이유.

60 영원한 목표를 성취하는 법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지상에서의 사명을 달성하는 동안 기쁨을 가져다줄 네 가지 목표.

61 나는 어떻게 아는가
내 삶의 중심
로베르토 파체코 프레텔
미대륙에 그리스도라니? 선교사들이 실수했을 거야.

62 해답을 찾아서

63 최고의 선물
마리엘라 로드리게스
선지자의 권고를 따름으로써, 나는 제일 좋은 선물을 나눌 수 있었다.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버스에서 빈자리를 찾으세요.



71

64 도움의 손길 모아
기사에 나오는 어린이들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법을 찾으면서 여러분이 그들을 보살피고 있음을 알릴 수 있어요.

66 신약전서 읽기 목표
이 활동은 올 한 해 동안 신약전서를 매주 몇 구절씩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69 선한 일을 하는 데 시간을 쓰기
클레이튼 더블유
너무 추워서 밖에서 놀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70 우리들 이야기

71 특별한 증인
경전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72 비밀 병기
제시카 라슨
우리 반에서 제일 작은 아이비가 어떻게 우리 반을 승리로 이끌었을까요?

74 경전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는 여행

76 애비의 상위 10가지 목록
로즈메리 워슨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열 가지 목표는 무엇인가요?

77 신약전서 인물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78 버스에서 드린 기도
미치 히메네스 라미레스
여러분이 어디에서 기도하건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실 수 있어요.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만한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두 가지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영원한 목표를 성취하는 법”, 60쪽, “애비의 상위 10가지 목록”, 76쪽: 새해를 시작하면서 각자 혹은 가족과 함께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는지 가족과 같이 생각해 본다. 열 가지 목표를 이루고 싶어 한 한 청년에 관한 로즈메리 엠 워웁스 자매의 기사를 읽고 자녀들에게 각자 목표를 세워 보도록 권유한다. 좀 더 성장한 자녀들이라면 영원한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의 중요성을 다룬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의 기사에 대해 토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가족들이 기록한 목표를 집안에서 눈에 띄는 장소에 걸게 한다.

“신약전서 독서 과제”, 66쪽: 가족과 함께 신약전서를 읽기 시작한다. 시작하면서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서 각자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부탁해도 좋다. 그런 다음, 다 같이 gospelart.lds.org나 scripturestories.lds.org에서 읽기 일정과 관련된 영상 자료나 미술품을 찾아본다. 또한 신약전서를 읽어 가며, 거기에 나오는 장면들로 역할극을 해 본다.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르치기, 24

가족, 12, 28, 32, 42, 46

개종, 12

결정, 4, 6, 18

결혼, 28, 32, 42, 46

경전, 66, 71

교육, 18

기도, 78

다툼, 62

목표, 60, 76

봉사, 15, 38, 41, 48, 50, 53, 55,

64

사랑, 15

선교 사업, 40, 48, 53, 55, 63

선지자, 28, 32

선택의지, 18

성전 사업, 12, 28

성찬, 10

속죄, 10

순종, 7

신앙개조, 69

신약전서, 66, 68, 74, 77

에즈라 태프트 벤슨, 32

연차 대회, 8

영생, 14, 60, 76

예수 그리스도, 7, 10, 24, 56, 61,

74

용서, 80

유혹, 14

전세, 18

존경, 72

친절, 72

회개, 12, 39, 80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선지자를 따르십시오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 갈 무렵, 저는 미 해군에서 복무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해군에서 가장 계급이 낮은 수병이었고 그 뒤 일등 수병을 거쳐 삼등 부사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 대전이 종결된 후 저는 군에서 제대했습니다. 하지만 군대로 돌아가게 된다면 장교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일반병 식당이랑 갑판 청소는 제발 그만.’

저는 제대 후에 미 해군예비군에 입대했습니다. 월요일 밤마다 군사 훈련을 했고 이수 과목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정신, 육체, 감정 면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은 다 치렀습니다. 마침내 고대하던 소식이 왔습니다. “귀하를 미 해군예비군 소위로 임명합니다.”

신이 난 저는 아내 프랜시스에게 임명장을 보여 주며 소리쳤습니다. “해냈어! 내가 해냈다고!” 아내는 저를 안아 주며 말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워드 감독단 보좌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감독단 모임은 해군 군사 훈련과 같은 시간에 있었습니다. 심각한 갈등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해군 예비군 임무와 감독단 임무를 둘 다 완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에 관해 기도했습니다. 그런 뒤 어린 시절 제 스테이크

회장이셨고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에 계시던 해롤드 비 리 (1899~1973)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탁자 너머로 장로님을 마주 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장교 임관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실은, 제가 받은 임명장 사본까지도 보여 드렸습니다.

장로님은 잠시 숙고하신 뒤 입을 여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리지요, 몬슨 형제님. 해군 사령부에 편지를 써서 감독단 부름 때문에 해군예비군 장교 임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로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12 해군관구장에 예비군 제대를 희망한다고 편지를 보내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리 장로님, 군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못하겠다고 하면 임명은 철회되겠지요. 그렇지만 12 해군관구가 저를 제대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한국 전쟁 때문에 틀림없이 부사관을 소집할 텐데, 다시 군에 가야 한다면 장교로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임관을 못 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정말로 제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리 장로님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아버지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몬슨 형제님, 신앙을 더 발휘하세요. 군대는 형제님한테 어울리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유서와 함께 눈물로 얼룩진



해롤드 비 리 장로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교회에서의 현재 제 직분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임명장을 동봉하여 우편물을 반송한 다음, 12 해군관구에 예비군 제대를 희망한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조직된 해군예비대에서 소집 해제되었습니다. 제가 속하려던 부대의 본부는 전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독단 보좌로 부름받고 6주 만에 워드 감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제가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또 어떻게 결정할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지혜가 종종 인간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도 한다는 중요한 진리를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면, 저는 교회에서 현재 제 직분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멸의 삶에서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은 언제나 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소한 결정이 역사를 움직인다고 하듯,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러나 우리 혼자 힘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의 빛을 얻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받으려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마음 속으로 받으려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따르십시오. 선지자를 따르는 한 여러분은 안전한 곳에 거할 것입니다. ■

주

1. 고린도전서 2:14 참조.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몬 스 회장처럼 사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교회 회원은 많지 않다. 그러나 선지자와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기만 해도 우리는 축복받을 수 있다. 지난 연차 대회에서 몬스 회장이 전한 말씀을 읽어 본다.(개회 말씀과 폐회 말씀도 반드시 읽는다.) 특별히 주어진 지침이나 행동으로 옮길 권고를 찾아본다.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이 배운 것에 대해 토론하고 몬스 회장의 권고를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본다.

이 메시지를 청소년이나 어린이에게 가르칠 방법을 보려면 6쪽을 참조한다.

어려운 선택을 하는 법

다 음은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이 선지자의 권고를 따랐던 일화이다. 한 연차 대회에서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회원들에게 부채 가운데서도 특히 주택 담보 대출을 해결하라고 당부했다.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전했다. “모임 직후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방법이 있겠소?’ 처음에는 안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무렵 아이어링 회장은 수년째 팔리지 않은 집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과] …… 그분의 종이 전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 제가 들은 대답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는 하나님과 그분의 종을 신뢰하는 마음이 굳건합니다.” 바로 그날 아이어링 가족의 주택 담보 대출금을 살짝 웃도는 가격에 그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던 것이다. 아이어링 가족은 곧바로 부채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가서 행하십시오”,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72쪽 참조)

여러분이 당장 주택 담보 대출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선지자의 권고는 지금 여기서만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이 직장과 교육, 선교 사업과 데이트에 관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도 여러분에게 인도가 될 것이다. 결정을 앞두고 선지자를 따르는 법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해 본다.

어린이

길을 찾아보세요

하 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려면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지자를 따르면 제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미로 속에서 길을 찾아보세요. 결정을 해야 할 때에는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세요!



경전 읽기
오른쪽으로 가세요



기도하기
아래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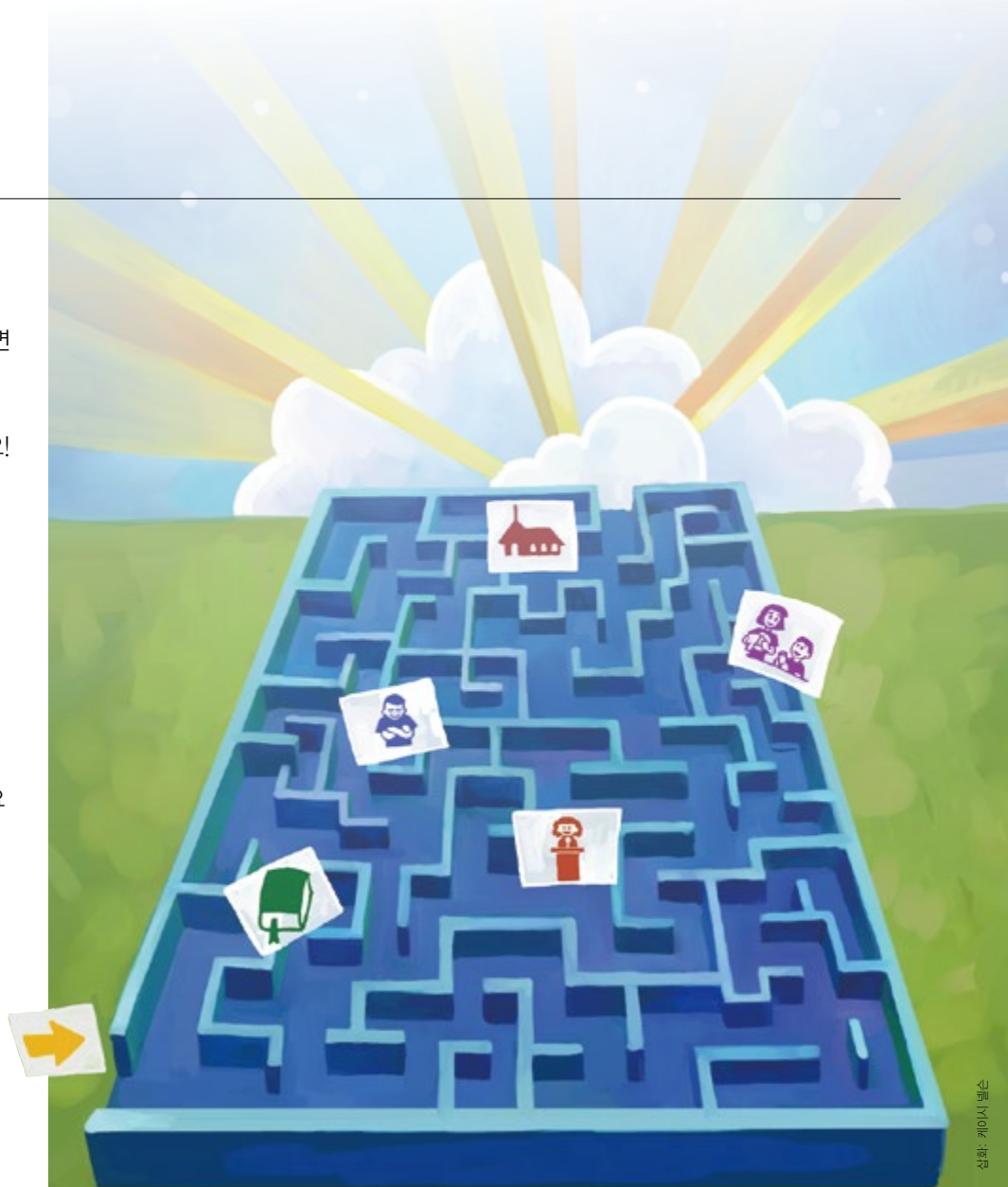
간증 나누기
오른쪽으로 가세요



다른 사람 돕기
아래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세요



교회 가기
위로 가세요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누구와 나눌지 알기 위해 간구한다. 구주의 생애와 사명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을 믿는 신앙을 키우고, 방문 교육을 통해 여러분이 돌보는 자매들을 축복할 수 있는가? 더 자세한 내용은 reliefsociety.lds.org에서 알아본다.



신앙, 가족, 구제

성구에서

“계명에 끊임없이 순종함으로써 생기는 영적인 힘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요?”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질문했다. “분명[한] 대답은 …… ‘아니요’입니다.”³

열 처녀의 비유는 이 원리가 드러나는 좋은 예이다. 처녀들이 모두 “신앙을 맞으러” 등을 들고 나갈 때, 슬기 있는 다섯 처녀만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나머지 미련한 다섯은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밤중에 소리가 들렸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처녀들이 모두 등을 준비했으나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미련한 자들이 자리를 뜬 사이 신랑이 도착하자 슬기 있는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들어가고 “문은 닫힌다.” (마태복음 25:1~13)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순종하는 아들

다음은 구주의 속성을 특징으로 다루는 방문 교육 메시지 연재 기사이다.

순 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면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커진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무엇보다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신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며 충실한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고 밝히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 순종은 곧 하늘의 첫째 율법입니다.”

경전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율법을 순종하였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130:21)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분께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구주가 베푸신 속죄의 힘이 우리 삶에 작용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이렇게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원리와 계명에 순종하며 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축복들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러한 축복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동적으로 받게 될 자원보다는 능동적으로 행해야 할 자원들을 공급해 줍니다. …… 순종은 우리의 삶에 대한 더 큰 통제력과, 자유로이 움직이고 일하고 창조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²

보충 성구

누가복음 22:41~46; 교리와 성약 82:10; 93:28

생각해 볼 점

경전에는 순종의 어떤 모범이 등장하는가?

주

1. Jeffrey R. Holland, “The Will of the Father in All Things”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Jan. 17, 1989), 4, speeches.byu.edu.
2.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성약의 권능”, *리야호나*, 2009년 5월호, 20~21쪽.
3.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주께로 돌이켰고”, *리야호나*, 2012년 11월호, 109쪽.

2014년 10월 연차 대회 노트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2014년 10월 연차 대회를 복습하면서 다음 내용(그리고 향후 리아호나에 실릴 연차 대회 노트)을 활용하여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전한 최근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리 살펴보기



우리를 인도하는 살아 있는 선지자

“교회 회장으로 봉사한 지 5년째 되는 해였던 지난해에 몬슨 회장님은 사도로서 봉사해 온 50년의 세월을 돌아보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교회가 올바르게 인도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제일회장단 평의회 및 십이사도 정원회의 구성 체계를 보면, 교회는 언제나 올바르게 인도되며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가 따르고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탄 이 배의

키를 한시도 놓지 않으십니다.’”

몬슨 회장님, 그런 사실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평생에 걸쳐 모범적이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손을 들어서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별된 노력을 기울여 회장님을 지지합니다.”

러셀 엠 넬슨 장로, “선지자를 지지하며”,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76쪽.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메시지”, *Church News*, 2013년 2월 3일, 9면.

선지자의 약속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침을 따르며, 그분이 걸으신 길을 걸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자 노력할 때,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얻은 영생을 우리와 함께 나누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제자가 되며, 살아가는 동안 그분의 일을 행하겠다고 선택하는 것보다 더 높은 목표는 없습니다. 이 외에 다른 어떤 선택도 그분이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지 못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네 발이 행할 길을 헤아리며”,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88쪽.



금식을 통해 모든 사람이 축복받습니다

“금식의 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기적이 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 최소한 매달 그런 성스러운 특권을 소중히 여겨 금식 헌금과 인도주의 기금과 영구

교육 기금, 선교사 기금을 내실 때는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넉넉히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주실 것임을 약속하며, 여러분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영원히 복되다 할 것입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우리는 모두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42쪽.



여러분을 위한 해답

연차 대회에서 선지자와 지도자들은 교회 회원들이 갖고 있을 만한 질문에 영감 어린 대답을 해 줍니다. 2014년 11월호를 이용하거나 conference.lds.org에 접속해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십시오.

-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입니까? 로버트 디 헤일즈, “영생—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80쪽 참조.
- 간증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크레이그 시 크리스텐슨, “나 스스로 이러한 일을 아노라”, 50쪽 참조.
- 자신의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엠 러셀 벨라드, “배 안에 머물고 배를 꼭 붙드십시오!”, 89쪽 참조.

그리스도와 영적 삶은 부자, 권위, 하인리히 홀프만, HARRISON CONROY, CO. 제공



유사점 알아보기

성전

때로는 한 명 이상의 연사들이 같은 복음 주제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성전에 관한 세 연사의 말씀입니다.

- “우리는 성전에서 영감과 계시, 그리고 살아가면서 적들에게 맞설 힘을 받게 됩니다.” —린다 케이 버튼 자매, “일찍이 알려진 적이 없는 방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나니”, 111쪽.
-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성전의 영을 통해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구주의 속죄가 지닌 실재성과 권능, 희망을 배웁니다.” —닐 에프 매리엇 자매, “여러분의 빛을 나누십시오”, 117쪽.
- “하나님께서 관대하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인생 길이 성전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진 에이 스티븐스 자매, “하나님의 성약의 딸들”, 114쪽.

conference.lds.org에서 연차 대회 말씀을 읽거나 시청 또는 청취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깨어 있을 시간

마리차 곤잘레스 에스페호

하루는 성찬식 말씀을 준비하며 2008년 3월 *리아호나*에 실린 십이사도 정원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기사를 읽었다. 글에서 홀런드 장로님은 올슨 에프 휘트니(1855~1931) 장로님이 꿈에서 본 겻세마네 동산의 구주를 언급하셨다. 휘트니 장로님은 구주께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시는 모습을 꿈에서 보았다. 그분은 이렇게 묘사했다.

“얼마 후 그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사도들이 무릎을 꿇은 채 곤히 잠들어 있는 곳으로 가셨다. 그분은 그들을 부드럽게 흔들어 깨우시고, 그들이 한시도 그분과 함께 깨어 있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며 분노나 책망의 기색 없이 부드럽게 나무라셨다. ……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 그분은 다시 기도하셨으며, 기도를 마치고 사도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또 잠들어 있었다. 그분은 다시 그들을 깨우시고 타이르신 후 돌아가셔서 전처럼 기도하셨다. 이 일이 세 번 반복되었[다].”¹

이 글을 읽자 계시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 그 순간, 내가 “[한 시간을] 그분과 함께 깨어” 있으려면 매주 안식일 성찬식에서 내 마음이 깨어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이후로

나는 성찬식이 더욱 깊은 뜻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수 있는 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기도는 늘 중요하지만, 특히 성찬식 시간에 임하는 영은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들어 올리는 기회를 준다. 주님께 생각을 집중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던 그 순간에 그분과 함께할 수 있다. 그러는 동안 그분이 우리를 위해

겪으신 고통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내게 성찬식은 매우 중요하다. 성찬식은 무한한 구원의 시간이다. 그 후 성찬식은 구주의 완전한 모범을 따르기로 한 성약을 영화롭게 할 것을 기도와 영으로써 기억하고 약속하는 성스러운 시간이 되었다. 나는 그분이 살아 계시며, 나를 사랑하심을 안다. 주님의 희생과 주님이 흘리신 값진 피로써만 우리가 구원받음을 나는 안다. “그분과 함께 깨어 있도록” 노력하면서 나는 이해력이



경건하게 속고하는 시간

“[성찬식은] 강력하고 경건하며 속고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느낌과 감명을 촉진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조금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둘러 끝내 버려도 되는 여타의 것과는 달리, 성찬식은 성찬식의 진정한 의도가 상실되지 않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식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서 전하는 말씀이나 찬송가나 기도는 이 신성한 의식의 중요성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리아호나*, 1996년 1월호, 68쪽.



키졌고, 인생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으며, 또한 그분의 면전에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 더 넓은 관점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

글쓴이는 페루 이카에 산다.

주

1. 올슨 에프 휘트니, 제프리 알 홀런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리아호나*, 2008년 3월호 33쪽에서 인용.

성찬을 통해 나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2012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칠십인 정원회의 돈 알 클라크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성찬을 취하도록 합당하게 준비한다면 우리 삶은 변화할 것입니다.” 클라크 장로는 “합당하게 성찬을 취할 때 우리 삶을 축복해 줄 다섯 가지 원리”를 제안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감사드린다.
2.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고 있음을 기억한다.
3.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4.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감을 구한다.
5. 합당하게 성찬을 취함으로써 성신으로 충만해진다.

또한 클라크 장로는 약속한다. “예배에서 성찬이 중심이 된다면 항상 훌륭한 성찬식이 될 것입니다.”¹

주

1. 돈 알 클라크, “성찬의 축복”,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104~106쪽 참조.

영원한 가족으로 가는 길

가스 햄블린, 샌디 햄블린

개종한 아카우올라스 가족은 이제 성전에 갈 결심을 굳혔다.

어느 일요일 아침, 친구들과 밤을 새우다시피 술과 카바(kava, 폴리네시아산 후추 나무 속 관목의 뿌리로 만든 마취성 음료-옴긴 이)를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통가의 시오페 아카우올라는 안식일 복장을 한 어느 가족을 보게 되었다. 그 가족은 웃고 이야기하며 함께 걷고 있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행복해하는지 궁금해진 시오페는 그들이 가는 곳을 알아보려고 뒤를 따라갔다.

그 가족은 후기 성도 교회 건물로 들어갔다. 시오페는 창문 너머로 다른 사람들이 도착하는 모습도 지켜보았다. 함께 앉아 경배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 가족의 얼굴은 행복하게 빛났다.

시오페는 문득 아내 리우가 생각났다. 신혼 때의 사랑은 이제 희미해져 갔다. 시오페는 다시 그런 사랑을 얻고 싶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간 시오페는 아내에게 가족의 성공에 도움이 될 방법을 찾았다며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마을에 있는 감독의 집을 찾아갔다. 술에 취한 시오페를 거리에서 본 적이 있는 감독이 그를 알아보았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감독이 미심쩍어하는 표정을 보였으나 시오페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시오페는 침례를 받고 싶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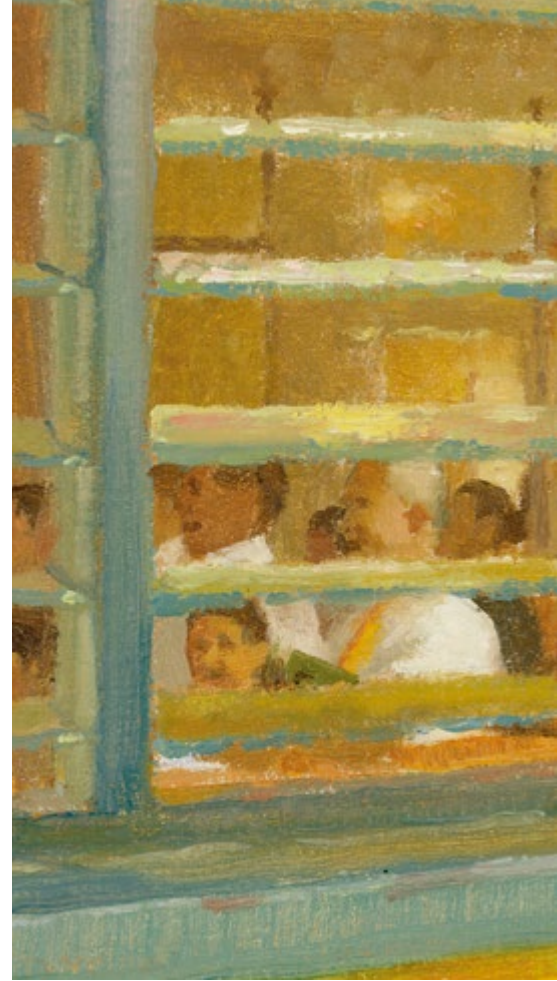
분명히 밝혔다. 잠시 침묵에 잠겼던 감독은 시오페를 집 안으로 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응하던 리우의 눈에도 남편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 들어왔다. 시오페는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행동으로 아내와 가족에게 더 큰 사랑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리우도 선교사들과 토론을 시작했으며 얼마 후 두 사람 모두 침례를 받았다.

침례 1주년을 앞두고서 아카우올라 가족은 성전의 훌륭한 축복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오페는 이렇게 말했다. “성전에서 받는 축복은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서 받게 된 축복보다도 더 크다는데, 그러면 대체 얼마나 더 큰 축복일지 상상해 보세요.” 가족은 성전에서 인봉되기를 소망했으나 통가의 성전은 수리 중이었다. 일 년 이상을 기다리거나 거금을 들여 성전이 있는 뉴질랜드나 피지까지 가는 수밖에 없었다.

가족은 어떻게 할지 깊이 생각하며 기도했다. 결국, 그들은 소액 대출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대출 절차를 진행하던 은행이 화재로 문을 닫게 되었다. 모든 대출 건이 이듬해로 연기되었다.

시오페와 리우는 망연자실했다.



그들은 작은 거실에 앉아 기적을 바라며 함께 기도드렸다.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는 동안 그들은 해답을 찾았다. 시오페는 이렇게 말했다. “저를 향해 웃음 짓는 저희 차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기도에 대한 응답이란 걸 알았어요.” 이튿날 이 부부는 차를 팔아서 다섯 식구의 피지행 비행기표를 샀다.

지친 세 자녀를 이끌고 늦은 시간에 피지 나디에 도착한 부부는 이제 다시 수바 성전에 가기 위해 긴 시간 동안 차를 타야 했다. 리우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의 집에 가까이 가려 할수록, 축복을 받기도 전에 우리를 포기시키려고 사탄이 더욱 기를 쓴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며 공항에 앉아 있던 가족은 한 여인의



도움을 받아 훨씬싼 값으로 숙소를 비롯해 다음 날 수바행 차편까지 해결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주신 것만 같았다.

이튿날 그들은 성전에 도착했다. “성전에 들어가자 마음이 평화롭고 차분해졌어요.” 리우가 말했다. “살면서 그 성전처럼 희고 깨끗한 곳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죠. 사람이 만든 집인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집은 얼마나 더 훌륭한 곳일까?”

성전에 머물면서 이 가족의 삶은

변화되었다. 리우는 말한다. “피지에 있는 내내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을 느꼈어요.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그분은 더할 나위 없이 우리를 잘 돌봐 주세요.”

집에 돌아온 뒤로도 아카우올라 가족에게 놀라운 축복이 계속됐다. 시오페와 리우가 둘 다 학위를 받고 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리아호나 고등학교에 채용된 것이다.

둘은 학교에서 가르치며 살 곳이 필요한 아이들을 눈여겨보게 되었다. 하나씩, 대부분은 두세 명의 아이들이

시오페와 리우네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부부는 그 아이들을 거두었다. 부부의 작은 집에는 이제 스무 식구가 산다. 대학에 가고 선교 사업을 하느라 집을 떠나 있는 “입양한” 자녀도 다섯이나 있다.

시오페와 리우는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삶의 짜임새를 갖춰 주면 이들도 성장하여 꽃을 피울 것임을 안다. 교회 회원이 아니던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이제 선교 사업에 대한 소망을 키우고 있다. 시오페와 리우는 돌보는 아이들을 우리 자녀라 부르고, 아이들도 모두 리우와 시오페를 엄마 아빠라 부른다. 아카우올라 가족은 자신들이 크게 축복받았음을 알려 기꺼이 그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 ■

글쓴이들은 미국 알래스카 출신으로 통가 선교부에서 봉사 중이다.



반딧불이

데이비드 라이트

지금 눈을 두는 곳은 영원한 보상인가, 다른 것인가?

여 러 해 전에 나는 고고학 유적지인 아구아테카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과테말라의 아름다운 벽촌에 자리한 그곳은 굽이굽이 흐르는 페텍스바툰 강을 따라 긴 시간 배를 타고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어느 날 저녁, 근처 유적지에서 하루를 보내고 고고학자 여럿과 아구아테카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들어가는 동안, 나는 낮게 울리는 전동기 소리와 지절대는 벌레 소리를 들으며 뱃전에 기대어, 잔잔한 배의 움직임과, 달도 없이 유난히 맑은 밤을 만끽하고 있었다. 배가 강을 굽이굽이 따라가는 내내 나는 눈으로 북극성을 좇으며 방향 감각을 유지했다. 북극성은 강기슭에 늘어선 나무의 킁킁한 윤곽에 가려 사라지기도 했지만, 금세 다시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강 한 굽이에서 다시금 나무 꼭대기가 북극성을 가렸으나 배가 남쪽으로 돌아 나는 숙련된 항해사라도 된 듯 내 방향 감각에 우쭐해하며 곧바로 다시 북극성을 향해 뱃머리를 돌렸다. 그런데 가만 보니 나는 뭔가를 잘못하고 있었다. 내가 방향을 맞춘 곳은 북극성은커녕 어떤 별도 아니었다. 내가 따라가던 것은 반딧불이였다.

그제야 나는 하늘에 떠 있던 수많은 “별들”이 사실은 따뜻한 밤공기 속을 잠잠하게 맴돌던 반딧불이었음을 깨달았다. 놀랍게도 공중에 반짝이는 반딧불이들은 멀리 떨어진 별이나 은하수의 빛과 거의 차이가 없어 보였고, 강을 따라 배가 구불구불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둘은 쉽게 혼동이 됐다.

“어쩌면 손톱만 한 반딧불이를 무한한 광채에 가까운 별로 착각할 수 있담?” 나는 궁금해졌다. 답은 간단했다. 인식의 차이였다. 상대적으로 희미하고 덧없기만 한 반딧불이가 별빛처럼 보였던 것은 반딧불이는 나와 가까운 곳에 있고 별빛은 한참 먼 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 눈에 둘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반딧불이처럼, 유혹과 시련도 눈앞에 있다는 이유로 거대해 보인다. 반면

약속된 축복은 별처럼 멀게만 보일지 모른다.

영적인 근시안의 결과는 다양하게 드러난다. 보상이 멀수록, 회개의 날을 미루고도 영원한 상속을 주장하고자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려는 유혹은 커진다.(엘마서 34:33~34 참조) 영원한 보상을 의심하거나 훨씬 나중에 올 축복을 기다리느니 원하는 대로 즐기는 편이 더 낫다고 정해 버리기 시작하고 만다. 또한, 살아가는 동안 끈질기게 따라붙는 죄와의 싸움이 두려워지며, 끊임없이 삶을 뒤흔드는 사탄을 이기도록 구주께서 도와주시리라는 믿음도 약해지기도 한다.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관점을 잃을 때가 있다. 관건은 되도록 속히 그 관점을 되찾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이 매혹적인 거짓 보상을 내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 삶의 굽이를 헤쳐나가며 그분이 진정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히브리서 11:6)을 신뢰할 수 있다.

그 강에서 배를 타던 때는 벌써 여러 해 전 일이 되었지만, 지금도 유혹과 맞설 때면 나는 숨을 고르고 나 자신을 일깨운다. “그저 반딧불이일 뿐이야.” ■

글쓴이는 미국 플로리다에 산다.



감자 선물을 받은 선생님

보니 달스러드

나는 봉사가 늘 대단한 몸짓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님을 배웠다.
소소하게 전하는 사랑의 몸짓도 그만큼 훌륭한 것이다.

25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어린 학생들이 주는 재미난 선물을 참 많이 받아 보았다. 우스꽝스러운 쪽지, 손수 그린 그림, 상상해서 만든 물건 같은 건 예사다. 그런데 감자를 받아 본 건 작년이 처음이었다.

“선생님께 드리는 감자예요.” 에머가 내 책상 옆으로 다가오더니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었다. “사과가 없어서요.” 깨끗하게 씻은 중간 크기의 감자는 감자 치고 꽤 잘생긴 녀석이었다. 나는 에머에게 고맙다고 하고 감자를 책상 위에 두었다. 그날 내내 에머는 감자를 바라면서 자랑스럽다는 듯 커다란 푸른 눈을 빛냈다.

방과 후에 책상에서 업무를 보는데, 감자가 생각나서 자꾸만 웃음이 나왔다. 아이들의 눈은 참 단순하다. 감자 하나로 에머는 나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몇 주 동안 감자를 치우지 않았다. 그건 나에게 깨우침을 주는 감자였기 때문이다.

와드에서 방문 교사이자 자매로서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 하면서도 시간을 내기에 앞서 늘 “사과”가 생기기만을 기다렸다. 시간에 쫓겨 캐서롤이라도 만들지 못했다거나 특별한 꽃을 가져가고 싶었지만 꽃집에 들 수 없게 되면, 누군가에게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고요하고 세미한 영의 음성도 무시해 버렸다.

“주말에 시간이 나면 해야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오늘은 다들 나 없이 괜찮을 거야.”

그런데 누군가에게 정말로 내가 필요했다면? 연로한 이웃이나 최근에 남편을 잃은 젊은 여성을 방문해야 한다는 느낌을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당장 내가 가진 “감자”로라도 돕고 봉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나는 실천에 옮기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에머에게서 배웠다. 사과가 없으면 감자를 나누면 된다. 바로 지금 말이다. 이제 나는 캐서롤이나 특제 레몬 크림 파이를 만들겠다고 시간이 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대신 쿠키 한 상자를 산다. 꽃집에 자주 들 수 없는 대신 빈손으로라도 잠깐 들러 이야기를 나눠도 괜찮다. 손수 만든 카드가 있으면 좋겠지만 짧은 전화 한 통도 나쁘지 않다. 봉사가 늘 거창한 몸짓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니다. 소소하게 전하는 사랑의 몸짓도 그만큼 훌륭하다.

이제 감자를 집으로 가져왔지만 그렇다고 그걸 먹지는 못할 것 같다. 느낌이 들 때 바로 봉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는 감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중까지 기다리는 대신 지금 가진 것을 나눈다. 에머가 준 감자는 단연 최고의 선물이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교회 소식

news.lds.org에서 더 많은 소식과 행사에 대한 기사를 볼 수 있다.

세미나리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높일 요건들

교회 전체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세미나리 졸업 요건은 학생들이 “학습 수준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공부를 시작할 때 시행될 요건들은 다음 두 가지 주요 요소를 포함한다.

1. 세미나리 학생들은 그 학년 동안 공부하는 경전을 읽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출석 기록과 감독 또는 지부

회장의 신권 지도자 승인을 기반으로 학점을 받게 될 것이다. 경전 읽기는 과거에도 강조되었으나 이제는 졸업 요건으로 정해졌다.

2. 학생들은 해당 학년 동안 두 번의 학습 과정 평가를 치를 것이며, 최소 75점을 얻어야 한다. 첫 평가는 해당 학년 중간에, 그리고 두 번째 평가는 학년 말에 치른다. 평가는 주로 교리에 대한 이해와 복음 원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다룰 것이다.

함께 경전을 공부하는 남아메리카 가이아나의 세미나리 학생들



새로운 세미나리 요건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와 일요일 청소년 교육 과정, 와서 나를 따르라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간증을 키우고, 복음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며, 봉사과 제자로서의 삶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 능력을 키우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매 학년 말에 학생들은 필수 요건(경전 읽기 및 평가를 포함한)을 완수했음을 나타내는 증서 또는 출석 요건을 충족했음을 보여 주는 이수증 중 한 가지를 받게 될 것이다. ■

색인 작업 기록 수립

국제 색인 작업 도전(International Indexing Challenge) 참가자들이 색인 작업 1일 최대 온라인 접속 기록을 수립했다. 2014년 7월 22일, 자원봉사자 66,511명은 인터넷으로 FamilySearch.org에 접속하여 역사 기록 이미지를 보고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할 정보를 옮겼다. 이전의 일일 최고기록은 1940년 미국 인구조사 색인 작업이 한창이던 2012년 7월에 세운 49,025명이었다.

또한, 이 도전에서 제출된 기록은 오백칠십만 개가 넘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통합(색인되거나 유효화된) 총계 기록을 세웠다. (각 기록은 품질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두 명의 자원봉사자가 색인 작업을 한 후에 중재자로 불리는 세 번째 자원봉사자가 검토한다.)

프랑스 툴루즈의 크루에 감독은 “회원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참으로 아름다운 경험입니다.”

웨일스에 사는 크리스토퍼 존스는 이렇게 말했다. “저희 부부와 5세부터 18세 사이의 일곱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가정의 밤 활동으로 색인 작업을 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합쳐서 900매가 넘는 기록을 색인 작업했습니다!”

태국 방콕에 사는 나탈리 테리는 13세인 딸과 함께 범세계적인 색인 작업의 날에 참여해서 아주 행복했다고 전했다. 영국 출리에 사는 크리스 세드는 약 30개에 이르는 새로운 가족 이름을 찾을 수 있었으며, 그중에는 “침례 후 곧 사망하여 인구 조사 기록에 빠졌던 어린 소녀”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소셜 미디어를 복음을 나누는 특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셜 미디어에 관한 사도의 권고

20 14년 8월 9일 브리검 영 대학교 교육 주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해서 세상을 의로움과 진리로 가득 찬 메시지로, 즉 신뢰할 수 있고 교훈적이며 칭찬할 만한 메시지로 말 그대로 홍수처럼 세상을 휩쓰는 일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베드나 장로는 소셜 미디어의 힘을 진리를 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단지 우리가 갑자기 수위가 높아졌다가 빠르게 잰아드는 돌발성 홍수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베드나 장로는 우리 시대를 “세계 역사에서 독특한 시기”로 칭하며, 이 시대는 “구원 사업을 가능하게 하고 가속화하는 혁신과 발명의 놀라운 진보”로 축복받은 시기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 선교사의 약 40퍼센트가 개종과 지속적인 활동 및 활동 촉진 노력에 디지털 기기를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과학 기술이 가족 역사 사업 및 성전 사업은 물론,

회복된 복음을 공부하는 개인과 가족의 노력을 얼마나 가속화해 왔으며, 어떻게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세계를 보고, 경험하며, 배울 수 있게 해 주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나 장로는 교회에서 제작한 부활절 동영상, 191개국과 영토에서 오백만 명이 시청한 그분 덕분에(Because of Him), 그리고 기도의 필요성에 관한 사만 개가 넘는 대화를 이끌어 낸 #didyouthinktopray 해시태그를 포함하여 최근 교회가 소셜 미디어에 기울인 노력을 언급했다.

그는 이런 노력과 다른 노력들은 “단지 작은 물방울”일 뿐이라고 표현하며 후기 성도들에게 “이 물방울을 홍수로 바꾸도록” 요청했다. 베드나 장로는 또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이 하도록 당부했다.

- “우리는 과장 또는 미화하거나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 혹은 그 무엇인 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콘텐츠는 신뢰할 수 있으며 건설적이어야 합니다.”

-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다투고, 비난하고, 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주고 교화하는 것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우리의 믿음을 지지하고 옹호할 때는 용감하고 담대하되 지나쳐 위압하지 말고, 분쟁을 피하십시오 제자로서 우리의 목적은 소셜 미디어 채널을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담긴 빛과 진리를 비추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 “기술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게 될 때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고, 너무 많은 관계가 손상되거나 무너질 수 있으며, 의로움의 귀중한 본보기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소셜 미디어를 잘 활용하더라도 우리의 시간, 에너지, 자원을 더 잘 또는 가장 훌륭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 “우리는 소셜 미디어 전문가나 미디어광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메시지를 만들어 나누는 데 지나친 시간을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는 일을 돕고 기쁨을 느끼며 중국에는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구주를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바로 지금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위임받았습니다.

“**고** 귀한 장자의 명분을 지닌 청년”¹ 여러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딸로,
가장 성스러운 목적을 위해 인류 역사에서도 지금 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도덕적, 종교적 사회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약화되어 가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은 주님의 표준을 대표하는 자가 되고, 빛의 근원이 되어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끍니다. 여러분에게는 고유한 정체성과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성약의 자녀입니다. 그 성약이란 하나님
이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다음과 같은 약속입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사도행전 3:25; 또한 니파이전서 15:18; 제3니파이 20:25
참조). 여러분은 “언약된 날의 자녀들”²이며, 세계 역사에서 지금은 복음이 지상 전체에
전파되리라고 약속된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형제님들은 전세에서 신권을 받도록
예임되었습니다.(앨마서 13:2~3 참조) 자매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돌보도록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선택되었고, 여러분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교리와 성약 132:63 참조) 하나님과 공동 창조자가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젊은 남성과 여성인 여러분은 각각 지금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복천년의
메시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실 구주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라는 임무를
하나님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고귀한 장자의 명분, 정체성, 목적, 신성한 의무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됩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 전세에서의 예임, 그러한 임무가 구원이나 승영을 선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을 통해, 그리고 삶에서 구주의 속죄 권능을
받아들이고자 선택할 때에야 가능해집니다. 위대하고도 영원한 원리인 선택의지는
아버지의 계획에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고귀한 장자의 명분을 지닌 청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더 많이 배우겠다고 결심하시겠습니까?

교육은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받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배움에 대한 깊은 소망을 키우십시오. 우리 후기 성도에게 교육은 단순한 특권이 아닌, 종교적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교리와 성약 93:36)입니다. 사실 교육은 영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얻는 예지의 원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부활 때에 우리와 함께 일어나리라.

그리고 만일 어느 사람이 이 생에서 자신의 부지런함과 순종을 통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는다면, 장차 올 세상에서 그 만큼의 유익을 얻으리라.”(교리와 성약 130:18~19)

그런 긴 안목으로 본다면, 학업과 관련하여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여러분의 목표, 더 나아가 여러분의 꿈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탁월함과 훌륭한 능력을 갖추는 데 지름길이란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타인을 돕고 싶다는 바람과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사이에는 교육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기대를 받습니다.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했던 말을 아실 것입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디모데전서 4:12)³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다른 모습을 갖추겠다고 결심하고, 자신이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지 지켜보십시오. 전 본부 청녀 회장인 아데스 지 캡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해변의 다른 수영 인파처럼 보인다면, 여러분은 생명 구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⁴

고귀한 장자의 명분을 지닌 청년 여러분의 위대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더 있습니다. “무릇 많이 주어진 자에게는 많이 요구되나니”(교리와 성약 82:3; 또한 누가복음 12:48 참조). 그 요구에는 징집된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침례를 받았을 때 주님의 군대에 다시 징집되었습니다.⁵ 여러분은 전세에서 천국 전쟁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섰었습니다. 지금도 지상에는 선악 간의 세력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요한계시록 12:7~9; 교리와 성약 29:40~41 참조) 하나님 진영에는 세상의 구주로 예임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니파이전서 10:4 참조) 다른 편에는 선택의지를 파멸하려 했던 반역자 사탄이 있습니다.(모세서 4:3 참조)⁶

하나님의 계획으로 대적은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여러분은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고, 회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분의 가르침을 믿으며 그분의 모범을 따르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책임이고 깊은 신뢰입니까!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자유는 여러분의 영원한 진보와 행복에 매우 중요하기에, 대적은 온갖 노력으로 그것을 파괴하려 합니다.(니파이후서 2:27; 10:23 참조)

삶에서 선택을 할 때 도움이 될 우선순위를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악 사이에서만 선택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두 가지 좋은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진리가 똑같이 중요하진 않기에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 지식을 추구할 때,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주님에게서 온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구주께서는 그분의 아버지께 드리는 중보 기도에서 이 진리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한복음 17:3). 배우고자 하는 모든 것 중에서도 하나님, 즉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제가 그렇듯 여러분도 그분들에 대해 알고 그분들을 사랑하십시오.

제 인생에 도움이 된, 우선순위에 관한 또 다른 경전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33).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궁극적이고도 영광스러운 운명인 영생으로 자신을 이끌어 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영광이 바로 그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4:7; 모세서 1:39 참조) 무엇보다도 영생을 우선시하십시오! 영생을 선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비된 상반된 축복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교리와 성약 76편, 88편과 같은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영생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삼고, 다른 선택들이 어떻게 제자리를 찾아가는지 보십시오.



그중 대다수가 아직 신성한 진리를 찾지 못했고, 그것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고귀한 장자의 명분을 지닌 청년 여러분이 그들을 구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 선한 사람들과 섞여 지내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개신교인이든 이슬람교인이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점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자발적으로 인간과 하늘의 법률을, 그리고 강요받지 않는 법까지도 순종하여 지킵니다.

인간과 하늘의 법률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여러분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빨간색 신호에 차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경찰에 발각되지 않더라도 절도와 살인은 잘못된 행동이며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점을 압니다. 그러한 법에 따라 살지 않을 때 돌아오는 결과가 단지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압니다.

삶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중 대다수가 아직 신성한 진리를 찾지 못했고, 그것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고귀한 장자의 명분을 지닌 청년 여러분이 그들을 구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다수가,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요청한 부름에 응하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지낼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16; 89:4 참조) 그러한 사람을 알게 되면, 빨리 그리고 영원히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도록 결정하십시오.(디모데전서 6:5~6, 11 참조)

슬프게도, 행복의 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죄의 진창길로 빠지도록 이끄는, 그 무언가를 극단적으로 찾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진창길을 조심하십시오! 죄에서 느끼는 모든 즐거움은 한순간일 뿐이지만 죄에 사로잡힌 기억은 죄책감으로 끝없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묶는, 신성하게 마련된 결합을 비틀어 버리는 죄악은 속 빈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불법적인 일에는 어떠한 고귀한 의미와 감미로운 기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와 속박 중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디에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적의 영토”에 삽니다.⁷ 독극물 같은 외설물이 역병처럼 창궐합니다. 외설물은 그 교활한 손아귀에 굴복당하는 모든 사람을 노예로 삼습니다.

이를 미리 내다보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비밀을 보이노니, 밀실에 있는 것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너희의 멸망을 가져올 일이라. 그러나 너희는 이를 알지 못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38:13; 또한 28절 참조)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밀실에서 여러분의 삶과 행복을 지금 당장 파괴하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적인 유혹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면서 똑같은 유혹을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 [깨끗한] 자들을 ……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베드로후서 2:18~19).

형제 자매 여러분, 그 속박을 피하십시오. 최근에 외설물을 보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십시오! 감독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한 번 외설물로 악한 영향을 받으면, 그 누구도 혼자서 대적을 능가할 만큼 똑똑할 수 없습니다. 외설물은 나병처럼 파괴적이며 약물처럼 중독성이 강하고 잣물처럼 독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철학을 따르겠습니까?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주의 깊게 공부하십시오.⁸ 전 세계에서 가족이 공격을 받고 있지만, 가족 선언문에 담긴 진리는 여러분을 강화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혼의 정의에 대해 사회에서 벌이고 있는 논쟁이 미칠 크나큰 결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의에서는 동성 결혼이 가능하느냐를 다룹니다. 이것에 대해, 또는 다른 중요한 사안에 대한 교회 입장이 알고 싶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고,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 영감에 찬 말씀들은 성신으로부터 오는 영감과 결합하여 여러분에게 더 크고 참된 이해력을 가져다줄 것입니다.⁹

결혼에 관한 논쟁은 여러분이 겪게 될 여러 논쟁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대적의 집요한 소음에 대항하여, 고귀한 장자의 명분을 지닌 청년 여러분은 주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해 서겠다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시대의 곤경을 예언했습니다.(디모데후서 3:1~5 참조) 그런데 우리 시대의 영적 황폐화를 정확하게 보여 준 바울의 시현 뒤에는 우리를 안도하게 하는 결론이 이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줍니다. “어려서부터 [경진]을 알았나니 [경진]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디모데후서 3:15).

바울의 조언에 제 말을 더하겠습니다. 경전을 계속 공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워 주는 일들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믿는 신앙을 통해 여러분은 젊은 시기에, 즉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시기에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가정으로 데려올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나이가 되면 다른 방법으로 얻었을 수도 있는 명성이나 재산보다도 자녀와 손자 손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더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주와 개인적으로 접견할 날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지닌 청년 여러분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처럼, 진정으로 회개할 때 완전한 용서를 가져다주는 구주의 속죄에 대해 깊이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이곳에서 지낼 필멸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을 압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이 약한 삶을 졸업하고 다음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압니다. “그 문을 지키시는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시니라. 그가 아무 종도 거기 두지 아니하시며”(니파이후서 9:41) 우리 각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개인 접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상에서 여러분은 매일 그 접견을 준비할 시간과 기회를 맞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주님의 편에서 살겠다고 선택할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겨운 필멸의 길을 따라 나아갈 때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매일 열심히 진지하게 드리는 기도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면, 그분은 천사를 보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84:88 참조) 합당하게 생활하면, 하나님은 성신을 보내어 여러분 옆에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할 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다른
모습을 갖추겠다고
결심하고, 자신이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지
지켜보십시오.

있도록 경전도 주셨습니다.(니파이후서 9:51; 32:3)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을 살아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분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니파이후서 4:34; 28:31
참조)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계속 초점을 맞추십시오.
엔다우먼트와 인봉 의식을 받기에 합당해지십시오. 그 성약에
충실하고 성전에 자주 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고귀한 목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축복인 승영을 얻는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4:7 참조) 성전 의식은 그 축복을 받는
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교리와 성약 131:1~3 참조)

경전에서 여러분의 정체성과 목적, 축복에 관한 구절을
찾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해 보십시오.(교리와 성약 86:8~11
참조) 그렇습니다. 고귀한 장자의 명분을 지닌 청년 여러분은
실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합법적인 상속자로서 이곳에서 시련과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는 일을
돕고 기쁨을 느끼며, 종국에는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2013년 9월 6일 브리검 영 대학교-하와이에서 열린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밤 말씀, “고귀한 장자의 명분을 지닌 청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에서
발췌함: 전문은 cesdevotionals.lds.org에서 볼 수 있다.

주

1. “Carry On,” *Hymns*, no. 255.
2. “이스라엘 시온 군대,” 찬송가, 156장.
3. 이 구절에서 “행실”은 흠영적 성경에는 *conversation*으로 나오는데, 이는 그리스어 *anastrophe*에서 번역된 단어로서 ‘높은 곳을 향하는 삶’이라는 의미이다.
4. 아테스 지 캡, *I Walk by Faith*(1987), 97쪽.
5. “싸움 끝나는 날까지,” 찬송가 179장 참조.
6. 선택의지를 자유의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경전에는 등장하지 않는 용어이다. 경전에서는 도덕적 선택의지라고 한다.(교리와 성약 101:78 참조)
7. 보이드 케이 팩커, “청소년들에게 주는 권고”,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16, 18쪽 참조.
8.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9. 가족에 관하여 교회가 공포한 영감 어린 선언문은 이렇게 전한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남녀간의 결혼은 그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어떠한 교사가

되어야 마땅할까요?

진실로 구주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분께서
가르치셨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태드 알 콜리스터, 회장(가운데); 존 에스
태너, 제1보좌(왼쪽); 데븐 지 듀란트,
제2보좌(오른쪽)

부 활하신 주님께서 미대륙에서
성역을 베푸신 기간이 거의
끝나 갈 무렵이었습니다.
주님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니파이인과 레이멘인의 땅을 에워쌌던
어둠을 몰아낼 빛을 이끌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가르치고
간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축복하시고 의문을 풀어 주시며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떠날 준비를 하시던 주님은 제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만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교회 안에서 너희가
행하여야 할 일을 알고 있나니, 이는
너희가 본 바, 나의 하는 일 그것을
너희도 하여야 할 것임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제3니파이 27:21, 27)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권하셨으며, 그분의 위대한
속성 가운데 하나는 바로 가르치는
능력입니다. 주님은 위대한 교사이십니다.
주님처럼 되려면, 우리도 더 큰 사랑을
품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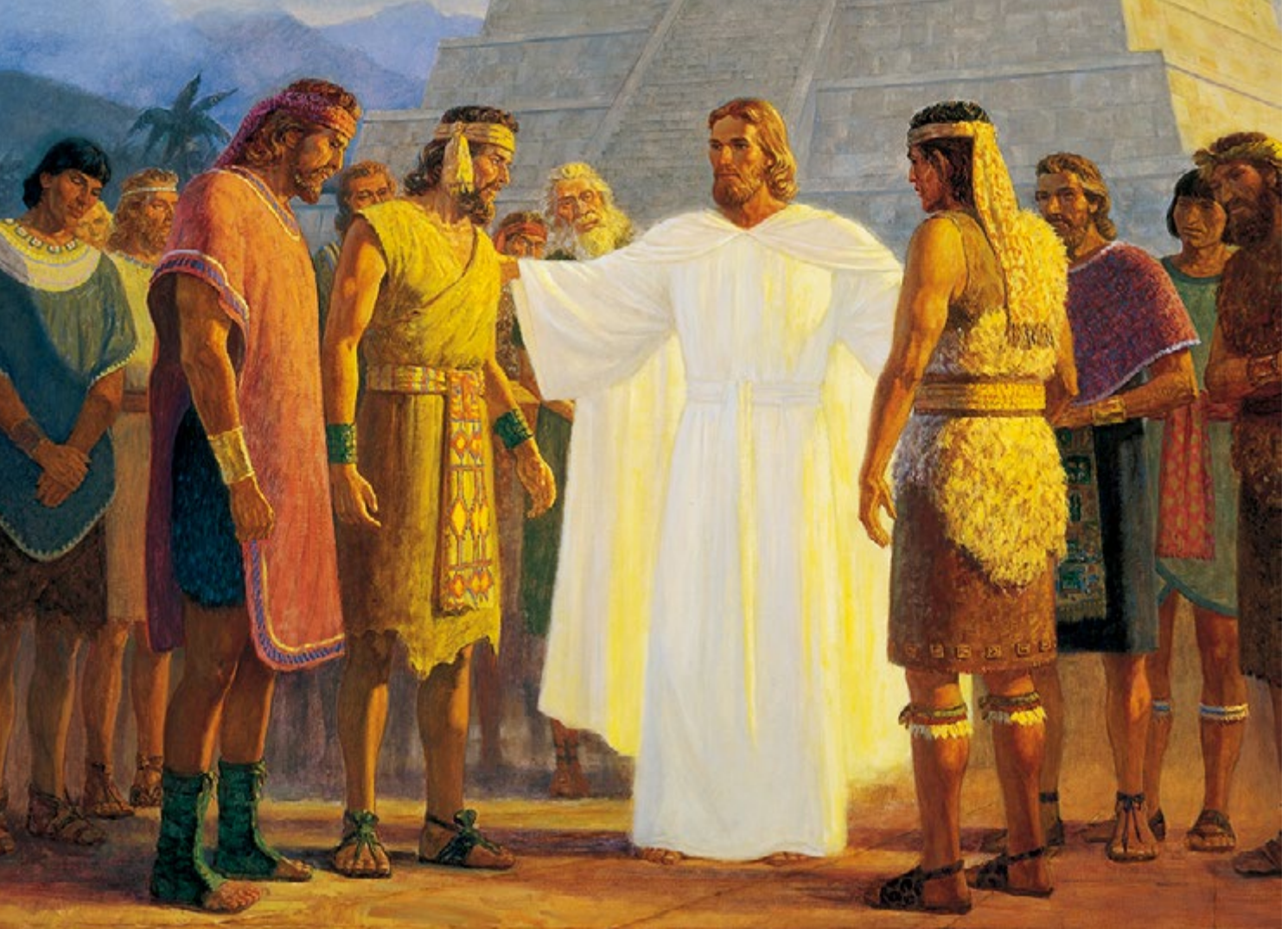
되어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처럼
되고자 한다면, 우리도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겠다고 가슴 깊이 열망해야
합니다.

질문과 권유

예수님은 잦은 질문과 권유로써
가르치셨습니다. 미대륙에서 제자들과
머무실 때 보여 주신 모범을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제자들이 기도하던 중에
나타나신 구주께서는 처음부터 제자들의
마음을 끄는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제3니파이
27:2) 구주께서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제자들은 답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교회를 일컬을 이름을 우리에게
일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는 이
문제에 관하여서 백성 중에 논쟁이
있음이니이다.”(제3니파이 27:3)

그리스도는 그분의 경전 중 한
군데서 답을 찾으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 곧 나의 이름을
받들어야 한다 말하는 경전을 그들이
읽지 아니하였느냐?”(제3니파이 27:5)



이 물음에 제자들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이 경전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자들을 상기하심으로써 답을 마무리하십니다. 제자들을 행동하게 하고 제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한 그분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을 받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 그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제3니파이 27:6)

가르침의 본보기

이 짧은 몇 구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스러운 가르침의 본보기를 보여 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필요 사항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고안한

질문을 함으로써 제자들의 생각을 자극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답을 기다리시고 경청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구하던 바를 찾을 수 있도록 경전을 들어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권유하시고 기꺼이 실천하려 하는 이들에게 훌륭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화에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방법은 다음 다섯 가지 원리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1. 효과적인 질문을 한다.

구주께서는 질문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 반원이

배우고자 하는 것들을 스스로 표현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반원을 적극적인 배움의 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2. 반원의 말을 경청한다.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이 교회를 일컬을 이름을 우리에게 일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라고 여쭙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을 경청하셨습니다. 주의깊게 경청하면, 우리는 더 잘 준비되어 반원의 필요 사항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경전을 사용한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 곧 나의 이름을 받들어야 한다 말하는 경전을 그들이 읽지 아니하였느냐?” 교사와 반원 모두 공과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여 경전을 읽어야 합니다. 경전 공부는 교사와 반원 모두의 영적 준비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4. 반원들이 행동하도록 권유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1)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 (2) 끝까지 견디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해 줄 어떤 일을 하도록 권유하지 않으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¹ 선교사뿐 아니라 모든 복음 교사에게 적용되는 권고입니다.

5.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축복들을 반원에게 상기시킨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권유를 행동에 옮기는 이들이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는 이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자주 약속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4:7 참조)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인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예시들은 구주께서 사용하신 여러 중요한 교수법입니다. 덧붙여, 그분은 비유와 유추로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방하는 이들을 시험하거나 꾸짖으시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책망하시는 이들조차도 주님은 늘 사랑으로 가르치셨습니다.(요한계시록 3:19 참조)

반원을 사랑하십시오.

구주의 방법대로 가르치려면, 우리도 항상 사랑과 자비로써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은 교사와 반원 모두의 마음을 열어 줍니다. 그리하여 “둘 다 교화되며,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50:22)

제자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모범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제3니파이를 보면, 그분은 백성을 위해 기도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셨으며,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 니파이인들은 그분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주께서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채웠던 그 기쁨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느니라.”(제3니파이 17:17)

주님은 백성들을 위해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으며 그들의 신앙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분의 크나큰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너희의 신앙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제 보라, 나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하시더라.

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시니”(제3니파이 17:20~21).

큰 사랑은 큰 배움을 부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을 저들에게로 향하시고 미소하시니 [……] 그들의 마음이 열려 예수께서 기도하신 말씀을 그들이 그 마음에 깨달더라.”(제3니파이 19:25, 33)

반원들이 간증하도록 격려하십시오.

또한,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간증을 나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러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아,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태복음 16:13~16).

베드로가 간증을 나누자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리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마태복음 16:17~19)

위대한 교사가 되고자 노력하다 보면, 우리도 반원들이 자신의 간증을 말로, 그리고 마음으로 나누도록 이끄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원들이 일상에서 개인적인 간증을 쌓는 경험을 갖도록 권유할 것입니다. 그럴 때 교실과 가정의 영을 느끼기 좋은 환경이라면 반원들은 서로 편안하게 영적인 경험과 간증을 나눌 것입니다.

가르치는 대로 생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따르고자 한다면(마태복음 4:19 참조) 그분과 같이 행하라고 하셨습니다.(제3니파이 27:21 참조) 주님은 가르치신 그대로 사셨으며, 따라서 그분은 모범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직접 봉사함으로써 봉사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발을 씻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범은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가르침이었을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한복음 13:14~15)

주님은 사랑하심으로써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

주님은 기도하심으로써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기록하지 못할 만큼 간절하고도 숭고하게 기도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희 가운데서 기도한 것같이 너희도 내 교회 안에서 …… 기도하라. 보라 나는 빛이니,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제3니파이 18:16)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방법대로 가르치고자 열망하는 모든 복음 교사에게 모형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처럼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살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노래하듯이 교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처럼 하세요. 나를 따라오세요!”²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치십시오

모든 복음 교사 여러분은 구주의 교수법을 반영하는 다음 여섯 가지 핵심 원리를 적용하기 바랍니다.

1. 반원을 사랑한다.

-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 반원의 필요 사항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2. 영적으로 준비한다.

- 가르치는 대로 생활하십시오.
-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십시오.

3. 영으로 가르친다.

- 반원을 도와 영을 인식하게 하십시오.
- 배울 줄 아는 교사가 되십시오.
- 배우는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4. 함께 복음을 탐구한다.

- 기대치를 높이십시오.
- 반원을 격려하여 간증하게 하십시오.
- 효과적인 질문을 하십시오.
- 반원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5. 교리를 가르친다.

- 경전을 사용하십시오.
- 일화와 실례를 활용하십시오.
- 축복을 약속하고 간증하십시오.

6. 행하도록 권유한다.

- 반원을 도와 배운 것을 적용하게 하십시오.
- 권유한 것을 확인하십시오.

이 원리들을 적용할 때 우리는 더 발전된 교사, 학생, 부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두가 모두에게서 교화[될]” 방법으로 “부지런히” “서로 가르치라”고 명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88:122, 78, 77) 우리에게 배우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위대한 교사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사실만 전달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변화를 부르는 가르침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

주

1.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년), 196쪽.
 2. “Do As I’m Doing,” *Children’s Songbook*, 276.





선지자의 권고와

성전 축복

젊은 시절, 저는 일본을 방문하신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장로님이 연사로 서신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분의 권고를 기억합니다. “젊은이들은 선교 사업을 나가고 성전에서 결혼해야 합니다.”

성신의 속삭임을 느낀 저는 선교 사업을 하겠다고, 그리고 아직 일본에는 성전이 없을 때였지만 그럼에도 성전에서 결혼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당시 저는 열아홉 살이었고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교회 회원이 아닌 제 부모님은 선교 사업을 하겠다는 제 결정을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허락과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여섯 달 후에 주님은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안 사정이 안 좋아져서 더는 학비와 생활비를 줄 수가 없겠구나. 이제부터는 너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야 한단다. 네가 선교 사업을 나간다고 해도 우리는 개의치 않을 거란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교회 건축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그런 다음에는 복음 선교사로 봉사할 자금을 모으기 위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세 군데나 얻었습니다! 이듬해에 저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을 새벽 3시에서 7시까지는 신문 배달, 아침

우리가 기도로 인도를 구하고, 살아 있는 선지자들을 따르고, 삶에서 성전을 우선으로 삼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9시에서 오후 4시까지는 건물 청소를 하고, 오후 5시에서 저녁 7시 30분까지는 요리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옷을 갈아입고서 지역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스물두 살이 되었을 때, 저는 극동 북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 동안 전에는 느껴 보지 못한 큰 기쁨을 경험했고, 여러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으며,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사로 나가 있는 동안 가족들도 축복을 받아서, 부모님은 재정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따르는 일

선교 사업을 마친 후, 저는 김볼 회장님이 주신 권고의 두 번째 부분을 따라 성전 결혼을 미루지 말라는 영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일본 회원들은 솔트레이크 성전을 방문하려고 1년 전부터 계획해 오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면 출발 날짜가 돌아올 것이었기에 저는 성전에 함께 갈 합당한 아가씨를 찾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고향인 마쓰모토에서 교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가 교회에 들어왔을 당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었던 시로코 모모세와 조우했습니다. 영은 즉시 그녀가 저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데이트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시로코에게 청혼했습니다. 기쁘게도 그녀는 제 청혼을 받아들였는데, 그런 다음에 그녀가 한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 기뻐요. 솔트레이크 성전 방문 계획을 듣고서 정말 저도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그곳에서 나와 결혼할 사람을 찾도록 도와달라고 여러 번 기도드렸지요. 1년쯤 전에, 기도를 드리던 도중에 영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내가 형제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그리고 형제님이 선교 사업에서 돌아오면 나에게 청혼할 거란 걸요.”

그것은 저희에게 놀라운 영적인 경험이었으며,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하겠다는 저희의 결심은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여행 경비가 부족했지만, 그 때문에 용기를 잃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저희는 주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했고 온 힘을 다해 필요한 경비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로, 그리고 시로코의 친구들에게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저희는

솔트레이크 성전으로 가는 일본인 성도들에게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부부로 인봉되면서 느꼈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 경험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의 기쁨을 더 크게 해 준 것은, 5대에 걸친 조상들을 조사하고 이름을 찾아 그분들을 위한 성전 의식을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동안 저희는 조상들을 위한 대리 의식을 받았습니다. 의식을 행하면서 저희는 그분들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노력으로 그분들이 큰 기쁨을 느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난한 신혼부부였지만 성전 방문을 최우선에 두었으며, 그 이후에는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한 자주 하와이 라이에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성전을 통한 축복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성전이 필요합니다.”¹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성전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에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성스러운 구원의 의식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영문 성경 사전(Bible Dictionary)에는 성전이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예배의 장소이며 “주님께서 방문하시는 곳”²이라고 나옵니다.

자신의 성전 성약을 지키고 “겸손한 마음으로, 깨끗함과 명예와 고결함을 지니고”³ 성전에 올 때, 우리는 성령을 느끼고 더 많은 빛과 지식을 받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갈 때는 주님의 권능으로 무장하게 될 것이며, 그분의 이름이 우리 위에 있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둘러 있을 것이고, 그분의 천사들이 우리를 돌볼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09:13, 22 참조)

결혼을 하고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정식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주님의 약속들이 제 삶에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시간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쁨에 들떴지만, 저는 정식으로 고용되지 않는 한 불안하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순종 - 확실한 지침

“사라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진로를 구상해 놓으셨고 순종이라는 확실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며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가장 중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순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89쪽.



열심히 기도으로써 하늘의 도움을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 사업을 가기 전에 저는 무역업에 종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무역회사에 취직하려는 지원자는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장과 특정 자격증들을 보유해야 했습니다. 대학 졸업장도 자격증도 없었지만, 저희는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저를 위한 일자리를 준비해 주실 거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학력이 부족했음에도 저는 무역회사 몇 곳에서 취업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두 곳에서는 거절당했는데, 세 번째 회사에 지원했을 때, 저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에는 일본인 회원들이 매우 적었고,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무역회사의 대표자 세 명이 저를 면접할 때, 그들은 제 이력서를 보고 제가 후기 성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자세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최근에 선교 사업을 마친 저로서는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최소 40여 분 정도를 복음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배도,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험, 몰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의 회복,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저의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면접관 중 어느 한 사람도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 무역회사는 저를 고용하겠다고면서 깜짝 놀랄 만큼 높은 봉급을 제시했습니다. 나중에 상사에게 왜 저를 고용했는지 물어보았을 때,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면접하는 동안 자네가 성실하고, 진지하고, 충직한 사람이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도 그런 태도로 일할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네.”

주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면접을 하는 동안 저는 주님의 권능과 영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전에 가고 성전 성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말입니다. 또 저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주님의 영이 저와 함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값어치 있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 성전이 세워지며

1975년, 도쿄에서 열린 지역 대회에서 김볼 회장님은 일본 도쿄 성전 건축을 발표하셨습니다. 저절로 터져 나온 박수 갈채는 일본 성도들의 감격을 그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본 도쿄 성전은 1980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일반 공개와 헌납식 동안 성도들은 놀라운 영적 경험과 크나큰 기쁨을 축복받았습니다. 성전 헌납 후, 성도들이 자신을 위한 성전 의식을 받고 조상을 위한 대리 의식을 받으면서 그러한 경험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 시로코와 제가 결혼한 지도 45년이 다 되어 갑니다.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겠다는 제 결정은 지금도 저희와 저희 자녀들의 삶에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방법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전 성약에 기초를 둔 훌륭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인도를 구하고, 살아 있는 선지자들을 따르고, 삶에서 성전을 우선으로 삼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16쪽.
2. Bible Dictionary, "Temple."
3. 스펜서 터블유 김볼, 일본 도쿄 성전 헌납 기도, 2013 Church Almanac (2013), 297.

플로라와 나

주님의 사업에 함께하는 동등한 동반자



왼쪽: 젊은 시절의 플로라 아무센과
에즈라 태프트 벤슨
오른쪽: 여섯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플로라와 에즈라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과 그의 아내 플로라 사이의, 서로를 지지해 주는 애정 깊은 동반자 관계를 알면, 벤슨 회장의 성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애런 엘 웨스트
교회 출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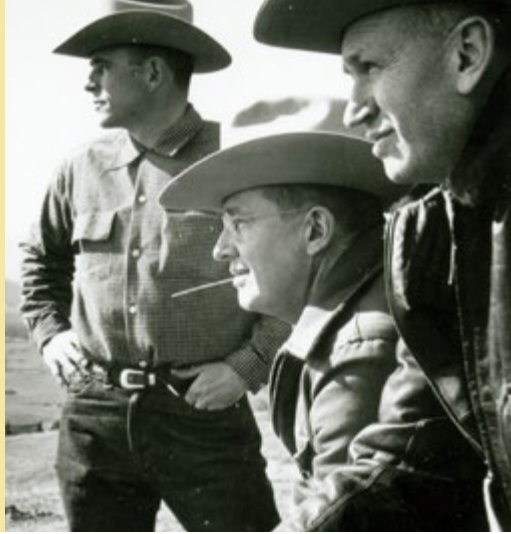
주 의 깊게 귀를 기울인다면, 때로 짧은 문구도 설교처럼 강력하게 다가올 수 있다. 그런 일은 1985년 11월 11일에도 일어났다. 그 문구는 바로 “플로라와 나”였다.

이 표현은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성별된 다음 날의 기자회견을 위해 준비한 발표문에도 들어 있었다. 6일 전에 서거한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 대신, 벤슨 회장이 선임 사도가 되었다.

벤슨 회장과 그의 아내 플로라는 김볼 회장의 부음 소식을 함께 들었으며, 그들은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¹ 전 세계에 보도될 발표문의 첫 문단에, 벤슨 회장은 다시 한 번 스스로를 아내 플로라와 함께 언급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날입니다. 제 아내 플로라와 저는 김볼 회장님이 지상에 더 오래 사시고 그분을 위한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나기를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인도에 따라 지상에서 이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²

59년간 결혼 생활을 한 벤슨 회장에게 “플로라와 나”라는 표현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에 따라 지상에서 이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는 말에서 *우리*라는 단어는 벤슨 회장 자신과 다른 총관리 역원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었다. 물론 그들과 하나가 되어 일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말이다. 이 발표문에서 교회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인 그는 주님의 사업에서 아내와 연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다.

농장 생활이 어떻게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성품을 형성했는지
알고 싶다면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즈라 태프트 벤슨,
2~5쪽을 읽어 보라.



위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다른
농부들과 함께 있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왼쪽에서 두
번째가 에즈라, 어머니와
형제자매들과 함께; 에즈라의
부모 조지 티 벤슨과 사라
던클리 벤슨



왜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와 플로라는 주님의
사업에서 거의 60년 동안 하나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삶은 여러 면에서 달라졌지만, 동반자
관계는 두 사람 모두에게 지속적인 힘의
근원이었다.

올해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들을 위한 학습 과정에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으로부터 가르침을 얻는 기회가
포함되어 있다. 그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그의 성품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이 기사는 그의 아내 플로라 아무센
벤슨의 관점을 통해 벤슨 회장의 삶과 성역
일부를 엿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 기사에
나오는 모든 장과 쪽 번호는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즈라 태프트 벤슨을 근거로 한 것이다.*

“나는 농부와 결혼하고 싶어요”

1920년 가을, 스물한 살의 에즈라 태프트
벤슨은 가족의 농장이 있는 미국 아이다호 주
휘트니에서 유타 주 로진으로 옮겨 가서 유타
농업 대학교(현 유타 주립 대학교)에 등록했다.
어느 날, 그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 캠퍼스에
있다가 한 젊은 여성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만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가 젓소들이 있는 우사 밖에 서 있을 때
아주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작은 차를
몰고 지나갔습니다. 우유를 사러 온 길이었어요.
친구들이 그녀에게 손을 흔들자 그녀도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저 아가씨가 누구지?’
라고 묻자 친구들이 ‘플로라 아무센이야.’라고
대답했지요.

저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난 말이야, 저
여자와 결혼할 거라는 느낌을 방금 받았어.’”

친구들은 에즈라의 말을 그저 장난으로만
여겼다. 그들은 “목동이 넘보기엔 너무 인기가
많아.”라고 했다. 이에 대한 에즈라의 대답은
“그럼 더 흥미진진하겠군.”³이었다.

플로라 아무센에 대한 친구들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것이었다. 십 대 시절부터 그녀는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특별한 점을
보았다.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 바버라가 “해의
왕국의 결혼을 하지 않고는 가장 높은 등급의
영광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자 플로라는 어찌면
순진할 수도 있지만 통찰력이 돋보이는 말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럼 저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뭐든 함께 노력해서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는 농부랑 결혼하고
싶어요.’”⁴

플로라와 에즈라는 1920년에 다시 만났고
우정은 곧 사랑으로 바뀌었다. 플로라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이 그녀가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인 부를 쌓기 시작한 청년임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기대한 것처럼 에즈라의 영적인
힘의 뿌리는 그의 가족 농장의 토양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다.

하나님을 우선시키기 위해 함께 일하며

플로라와 에즈라가 가까워지기 시작하던 그때,
그들은 2년 동안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에즈라가 영국 선교부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두 사람은 선교사로 봉사하는 기회에 대해 기뻐했으며, 또한 “그들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둘의 우정이 지속되기를 원했지만 에즈라가 헌신적인 선교사여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제가 떠나기 전, 플로라와 저는 한 달에 한 번만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라고 그가 말했다. ‘또 우리의 편지가 서로 용기를 주고 신뢰를 표현하고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되게 하자고 결정했지요.’ 우리는 정말 그런 말만 교환했습니다.”⁵

선교사 부름을 대하는 그들의 방식은 세월이 흐른 후 에즈라가 성도들에게 가르친 다음 진리를 그대로 보여 주는 한 예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 다른 모든 것은 올바른 위치에 정리되거나 우리 생활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무엇에 애정을 쏟을지, 시간을 어디에 쓸지, 어떤 흥미를 추구할지, 그리고 어떤 우선순위를 세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⁶

선교 사업 기간이 끝나 가면서 에즈라와 플로라는 서로 만날 날을 고대했다. 그러나 플로라는 “그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당장의 즐거움만 예상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의 미래와 그의 가능성을 고대했다. …… 그녀는 아이다호 주 휘트니에 있는 가족 농장에서 살림을 꾸리고 싶은 에즈라의 소망에 기뻐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먼저 학업을 마쳐야 한다고 느꼈다.”⁷ 플로라는 에즈라가 그렇게 하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일에 동참하기로 한다. 에즈라가 선교 사업에서 돌아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자신도 선교 사업을 나가겠다고 말하여 에즈라에게 놀라움을 안겨 준 것이다. 이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11쪽에서 읽어 볼 수 있다.

다이아몬드 원석

플로라와 에즈라는 1926년 9월 10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선천적으로 선한 에즈라의 성품과 학업적인 성공에도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전임 선교 사업에 관한 내용은 교재 9~10쪽과 103~104쪽에 걸쳐 실려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도로서 봉사한 내용은 17~21쪽, 54~55쪽, 69~70쪽, 264, 268쪽에서 알아볼 수 있다.



맨 위: 선교사 부름을 받기 전인 젊은 시절의 에즈라 태프트 벤슨.
위쪽과 오른쪽: 사도로서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의 유럽인들을 보살피는 일에 일조했다.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플로라의 판단에 계속 의문을 제기했다. 재능이 많고 부유한데다 인기도 많은 그녀가 왜 농촌 총각에 만족해하는지를 다들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늘 농부와 결혼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그녀는 에즈라를 ‘현실적이고 현명하며 건실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또 ‘에즈라는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사람인데, 부모님을 그렇게 존중한다면, 나에게도 그렇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에즈라가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알아보았으며, ‘이 작은 고장은 물론이고, 온 세상이 그가 좋은 사람임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⁸

남편의 잠재력에 대한 그러한 비전이 있는 플로라는 자녀들을 부양하고 교회와 지역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든 기꺼이 갔다. 때로 그것은 익숙하지 않은 훨씬 더 단출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였다.



미국 농무부 장관으로 일한 8년간,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는 동시에 사도로도 계속 봉사했다. 그런 책임들을 그가 어떻게 수행했는지는 21~25쪽, 47~48쪽을 읽어 보면 알 수 있다.



헌신에 감사해했다. 플로라와 에즈라의 결혼 초기 이야기와 부모로서 겪은 경험들은 12~15쪽에서 읽어 볼 수 있다.

인생을 바꾼 두 통의 전화

1943년 7월 27일, 플로라는 남편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된다. 에즈라는 아들 리드와 함께 사업차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했다가 집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는 중이었다. 플로라는 약 3,200킬로미터 떨어진 워싱턴 디시 근처의 집에 있었다. 기도와 눈물로 밤을 지새운 에즈라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전날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음을 알렸다.

그 소식에 플로라는 놀라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여행 중에 뭔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었다.”¹⁰ 플로라는 남편에 대한 신뢰를 표현했고, 그녀의 말에 에즈라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아내와 이야기를 하니 안심이 조금 되었습니다. 아내는 늘 저 자신보다도 저에 대해 더 많은 믿음을 보여 주는 사람이었습니다.”¹¹

플로라는 남편을 신뢰했으나 그 혼자서는 부름을 수행할 수 없고, 가족의 지지와 하늘의 힘이 필요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한 연차 대회에서 플로라가 속삭인 말은 남편에 대한 사랑과 함께 남편이 주님께 의지한다는 것을 그녀가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48~49쪽 참조)

1952년 11월 24일, 플로라는 남편에게서 또 한 번 삶을 변화시킬 전화를 받는다. 이번에는 에즈라가 워싱턴 디시에 가 있었고, 플로라는 솔트레이크시티의 집에 있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취임을 앞둔 드와이트 디 아이젠하워는 벤슨 장로에게 농무부 장관직을 부탁했다. 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자리였다. 그 제안을 수락하라는, 당시 교회 회장인 데이비드



맨 위: 성도들 가운데 있는 벤슨 회장
왼쪽과 위쪽: 미국 농무부 장관으로 일하는 벤슨 회장

예를 들면 결혼식 날, “축하연은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아침 식사를 든 것이 전부였다. 아침 식사 후에 신혼 부부는 곧바로 포드사에서 만든 티형 소형 트럭을 타고 아이오와주 에임즈를 향해 떠났다.” 그곳에서 에즈라는 농업경제학 석사 학위 공부를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다. “여행 중에 두 사람은 구멍이 난 천막에서 8일 밤을 보냈다. 에임즈에 도착한 후, 대학 교정에서 한 구역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빌렸다. 작은 아파트에서 둘은 우글거리는 바퀴벌레들과 함께 살았지만, 에즈라는 그 집이 ‘금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아늑한 작은 별장같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⁹

에즈라가 “원석”에서 “다이아몬드”에 더 가까워짐에 따라 그가 가정 밖에서 봉사해야 할 일도 훨씬 더 많아졌다. 이것은 플로라에게도 정련의 과정이 되었다. 에즈라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 플로라는 때로 외로움과 낙담으로 힘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삶을 사랑했고, 남편의 선함과 가족에 대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의 권고에 따라 벤슨 장로는 그 장관 자리를 받아들였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가 입각을 제안했고 이를 수락했다는 소식을 들은 플로라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분이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이 수락할 줄도 알았고요.” 가족에게 어려움이 닥칠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¹²

벤슨 장로는 농무부 장관으로 8년 동안 재임했다. 그 기간에 가족들은 떨어져 지내는 시간을 견뎌야 했고, 벤슨 장로는 공직에 오를 때 따르는 비난과 과찬을 감당해야 했다. 벤슨 가족은 좋은 기회들을 받기도 했다. 예를 들어, 벤슨 장로는 12개 국과 무역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4주에 걸친 출장을 나설 때 플로라와 두 딸 베벌리와 보니를 동반했다.(181~182쪽 참조) 기자에게 받은 초대로 가족들은 선교 사업을 할 독특한 기회를 맞기도 했다.(24쪽 참조)

미국 농무부 장관으로 일한 8년간,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는 동시에 사도로도 계속 봉사했다. 그런 책임들을 그가 어떻게 수행했는지는 21~25, 47~48쪽을 읽어 보면 알 수 있다.

주님의 손에 들린 동등한 도구

교회의 모든 회장과 마찬가지로 에즈라 태프트 벤슨은 그 부름을 위해 예임되었다. 그러나 혼자서는 그 예임을 성취하거나 것처럼 활력 있게 봉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분명 그에게 누구보다 큰 영향을 준 사람은 플로라였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두 사람은 주님의 손에 들린 훌륭한 도구로서 함께 일했다.

교회 전체를 감리하게 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함께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벤슨 회장과 벤슨 자매는 “지상에서 주님의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해]”¹³ 함께 일했다. 소녀 시절에 플로라가 소망했던 것처럼 두 사람은 원하는 것을 함께 이루어 나갔다.¹⁴



연단 위에서 벤슨 회장은 후기 성도들에게 세상과 그들의 삶을 몰몬경으로 채우라고 권고했다.(9~10장 참조) 가정에서 플로라는 매일 남편에게 몰몬경을 읽어 주었고, 그런 후 두 사람은 읽은 내용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¹⁵ 연단 위에서 벤슨 회장은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촉구했다.(13장 참조) 개인적으로, 플로라와 에즈라 벤슨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매 주 금요일 오전에 함께 성전에 갔다.¹⁶ 연단 위에서 벤슨 회장은 교만이라는 죄와 “세상의 칭송”에 대해 경고했다.¹⁷ 비록 플로라는 “온 세상이 그를 알게 되도록”¹⁸ 도와 그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함께 조용한 “하늘의 칭송”¹⁹에서 만족을 느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사도로서, 또 교회 회장으로서 수많은 설교를 했다. 그 설교 중에서, 그가 1985년 11월 11일에 전한 세 날말로 이루어진 설교, “플로라와 나(Flora and I)”라는 말과 연관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

주

1. Sheri L. Dew, *Ezra Taft Benson: A Biography* (1987), 479.
2. Ezra Taft Benson, Don L. Searle, “President Ezra Taft Benson Ordained Thirteenth President of the Church,” *Ensign*, Dec. 1985, 5.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즈라 태프트 벤슨*(2014), 7~8쪽.
4. Dew, *Ezra Taft Benson*, 74-75.
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즈라 태프트 벤슨*, 8쪽.
6.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즈라 태프트 벤슨*, 40쪽.
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즈라 태프트 벤슨*, 10쪽.
8.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즈라 태프트 벤슨*, 11~12쪽.
9.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즈라 태프트 벤슨*, 12쪽.
10. Dew, *Ezra Taft Benson*, 176.
11. 에즈라 태프트 벤슨,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즈라 태프트 벤슨*, 16쪽.
12. 플로라 아문센 벤슨,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즈라 태프트 벤슨*, 23쪽.
13. Ezra Taft Benson, Searle, “President Ezra Taft Benson Ordained Thirteenth President of the Church,” 5.
14. Flora Amussen Benson, Dew, *Ezra Taft Benson*, 74-75.
15. 디린 헤드 로드리게즈, “플로라 아문센 벤슨-선지자의 내조자, 주님의 여중, 성도의 벗, 1987년 6월호, 19쪽 참조.
16. Dew, *Ezra Taft Benson*, 511 참조.
1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즈라 태프트 벤슨*, 229쪽.
18.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즈라 태프트 벤슨*, 11~12쪽.
19.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즈라 태프트 벤슨*, 229쪽.

되돌아온 봉사

대 학교 1학년 때 나는 함께 살던 친구와 함께 그녀의 종조부를 자주 방문했다. 98세인 그 할아버지를 우리는 애정을 담아 조 삼촌이라고 불렀다. 홀로 사는 외로운 분이었기에 우리는 가능한 한 자주 조 삼촌을 찾아뵈려고 했다. 우리가 가면 조 삼촌은 멕시코와 애리조나의 몇몇 국경 도시에 살았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도시

중에는 노갈레스도 있었다.

친구가 잠시 고향집에 가 있는 동안에도 나는 조 삼촌을 계속 찾아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친한 친구가 되었고, 1년 반 후에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그 댁을 방문했다. 나는 친구를 잃은 것이 슬펐지만, 함께 보낸 소중한 시간에 감사해했다.

조 삼촌이 돌아가시고 10년이 흐른

후, 내 증조할머니의 일지를 읽게 되었다. 일지에는 재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은 채, 밀린 집세 30달러와 어린 아이들 아홉 명만 남기고 떠나버린 할머니의 남편 이야기가 나온다.

내용은 이렇게 이어진다. “비스비 [애리조나] 사람들은 우리에게 정말 친절했다. 우리 집은 비스비 시내에서 떨어진 남쪽에 있었는데, 그들은

조 삼촌은 혼자 사셨고 외로웠다. 그래서 친구와 나는 가능한 한 자주 그분을 찾아뵈려고 노력했다.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우리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멕시코에 살았던 조셉 클레인 형제님은 여러 번이나 우리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 가족은] 우리 모두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도 했다. 튀긴 토끼고기와 함께 여러 가지 음식을 내왔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다. 그 가족이 노갈레스로 전근을 가게 되었고 …… 우리에게 키우던 토끼들을 주었다. 예쁜 흰 토끼들이었는데, 덕분에 우리는 식량이 충분해졌다.”

그 부분을 읽으며 나는 우리 증조할머니를 도와준 조셉 클라인이 조 삼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가 조 삼촌을 계속 방문하도록 영감을 받았던 것은 조 삼촌이 우리 증조할머니 가족에게 베푼 친절에 작은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영의 속삭임을 통해 알게 되었다.

한 바퀴를 돌아온 이 사랑과 봉사의 이야기에서 나도 한 역할을 맡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랐다. 주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아신다. 성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할 수 있고, 또한 그럼으로써 그 축복은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

크리시 처치 서머스, 미국 유타

스 테이크 회장단 한 분과 마주하고 앉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스테이크 서기가 전화로 약속을 잡으면서부터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내가 봉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그분이 알까?

나는 어떤 죄들은 이 지상에서 밝히기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대로 가져가는 것이 더 쉽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아내에게 고통과 당혹감을 안겨 줄 것들을 드러내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차라리 나 혼자 극복하고 혼자 짐을 지는 것이 나았다. 하나 문제는 나 혼자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내 앞에 앉은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는 나에게 부름을 주었다. “형제님, 이 부름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라고 외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거의 무심결에 말이 흘러나왔다. “아니요. 먼저 해결해야 할 죄가 있습니다.”

죄의 대략적인 내용을 고백하고 나자 불안과 안도가 동시에 밀려왔다. 그분은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눠 보았느냐고 물었다. “아니요.” 아내와는? “아니요.” 그분은 악수를 하고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고백한 일을 대견하게 느낀다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감독님과 아내와 이야기할 것을 권했다.

나는 그 권고에 순종하여 아내에게 이야기했고, 그렇게 해서 나의 가장 큰 두려움을 먼저 없앴다. 아내는 여전히 나를 사랑했다! 그랬다. 아내는 마음이 상했고, 우리 둘이 해결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지만, 아내는 여전히 나를 사랑했고 감독님에게도 이야기하도록 용기를 주었다.

이야기를 하러 감독님을 찾아갔을

때, 감독님은 곧바로 나를 반기며 감독실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아주 어렵게, 나는 내가 왜 그 자리에 왔는지를 설명하려 애썼다. 죄를 너무나 오랫동안 숨겨 온 탓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감독님은 모든 것을 털어놔 보라며 애정을 담아 나를 다독였다. 나는 나의 죄를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모든 잘못을 세세히 밝히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청했다. 감독님은 흔쾌히 동의해 주었다.

아직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짐이 들어 올려지는 것이 느껴졌다. 또한, 마침내 이 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다.

그 후 여러 주 동안 나는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감독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릴 나의 잘못들을 기록했다. 먼저 그 기록을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져가서 죄송한 마음과 변화하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을 말씀드렸다. 나는 감독님과 다시 약속을 잡고 내가 작성한 목록을 전부 보여드렸다. 감독님은 얼굴을 찡그리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나를 책망하지도 않았다. 그 대신 나를 꼭 껴안아 주었다. 감독님은 내가 참된 회개의 길에 들어섰다고 말하며, 자신과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 주었다. 나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다.

이제껏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내 죄를 고백한 그 일이 이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험 중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선물과 그 치유 능력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었다. ■

익명

우리는 그 길로 갔다

선 교 사업 마지막 지역에서 동반자와 나는 브라질 상파울루 주 내륙의 두 마을에서 봉사했다. 두 마을 사이에는 숲을 가로지르는 지름길이 있는데, 우리는 그곳이 위험하다고 여겼고 거기서 사람을 만날 것 같지도 않았으므로 그곳에는 발을 들이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그 지름길 가까이로 걸어가는데, 우리가 그 숲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성신의 속삭임이 마음속에 느껴졌다. 나는 동반자인 안드레이드 장로를 보며 방금 받은 느낌에 대해 이야기했다. 동반자는 자신도 똑같은 느낌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 낯선 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아주머니가 보였다. 좁은 길이였기 때문에, 아주머니 걸을 지나칠 때 우리는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더니 자기를 따라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집에서 아주머니의 남편 분도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곧바로 이 열린 마음을 가진 부부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몇 주 후에는 침례를 권유했다. 부부는 곧바로 그에 동의했다. 그곳 와드에서 침례식이 있는 지가 거의 1년이 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척 신이 났다. 그날 그 길로 가라는 영감을 따른 것에 감사드렸다.

침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자매님은 우리에게 해 줄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자매님은 여러 해 동안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었다고 했다. 꿈에서 자신이 상파울루 한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으면, 한 노인이 다가와서는 두 젊은이가 와서 그녀의 삶을 바꿔 놓을 것이라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두 젊은이가 다가오는 것이 보이는데, 늘 거기서 꿈이 끝났다고 했다.

그리고 몇 주 전의 어느 날, 집안을 쓸고 있는데 두 젊은이가 다가오고 있으니 당장 그 지름길로, 그녀가 우리를 만난 그 길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게 무슨 느낌인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꿈의 의미를 알고 싶었던 그녀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그 지름길로 향했다.

걸어가는 동안, 두 젊은이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그 꿈 속의

장면들이 마치 영화처럼 머릿속에 떠올랐다. 두 사람이 검은 명찰을 달고 있는 것도 보였다. 그리고 잠시 후, 안드레이드 장로와 내가 길로 들어서며 그 자매님 앞에 나타났다고 한다. 그때, 그녀는 감정이 벅차올라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성스러운 경험을 생각할 때면, 지금도 영이 느껴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자매님의 눈물 젖은 얼굴이 떠오른다. 다행히도, 동반자와 나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셨던 길로 갈 만큼 예민하고 용기 있었다. ■

루트 데 올리베이라 마르콜리노,
브라질 리오그란데 도 노르테

낯선 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아주머니가 보였다. 우리는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꽃을 드릴까요?

소 아과 병동에서 유난히 힘든 근무를 마친 어느 날, 나는 피곤하고 짜증스러웠다. 보안 창구를 향해 걷던 중에 예쁜 꽃들이 눈에 들어왔다. 창구를 보는 사람에게 꽃들이 참 아름답고 향기가 좋다고 말하자 그녀는 나에게 그 꽃들을 가져가도 좋다고 말했다.

정말 행복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하루를 기쁘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 꽃을 주신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병원에서 걸어 나오는데 앞에 휠체어를 탄 부인이 가고 있었다. 앞질러 가고 싶었지만, 결국 건물 밖으로 나와서야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내가 지나가자 그녀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아, 꽃이 정말 아름답네요.”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서 차에서 기다리는 남편에게로 서둘러 갔다. 남편에게 꽃을 보여 줄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나보다 아까 그 부인에게 꽃이 더 필요하다는 성신의 속삭임이 느껴졌다. 꽃을 양보하는 것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 느낌대로 하기로 했다. 꽃을 드릴까요 하고 물으면서도 그녀가 거절하기를 바랐다.

“아, 좋아요!” 그녀의 대답이었다. “꽃이 참 좋네요. 정말 아름다워요.”

나는 꽃다발을 내밀었다. 그리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괜찮은지 묻자 그 부인은 남편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을 본 지 1년도 더 되었다는 말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하나님께 그분의 사랑을 증명할 뭔가를 보여 달라고 간청했다고 한다.

“당신은 내가 좋아하는 꽃을 전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 주신 천사예요. 이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겠어요.”

가슴이 아팠다. 나는 얼마나 이기적이었던가. 이 부인은 다정한 말이 필요했는데, 나는 말 한마디 나눌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천사가 아니었다. 발길을 돌린 후, 나도 울음을 터뜨렸다.

차에 도착하자 남편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또 꽃은 왜 주었는지 물었다.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내 이야기를 듣고서 안도했다.

남편이 말했다. “내가 오늘 당신에게 장미를 보냈거든. 당신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데 방금 누군가에게 줘 버린 줄 알고 걱정했어. 그 꽃다발이 내가 보낸 게 아니라면 우리 꽃은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알아보니 꽃집에서 장미 배달을 잊어버린 것이었다. 우리는 차를 몰고 꽃집으로 갔다. 남편은 가게에 들어가더니 이내 아름다운 꽃다발을 들고 다시 나왔다.

나는 또 한 번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그 꽃들을 양보하라고 부탁하셨던 것이다. 그분은 더 좋은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 그분의 외로운 딸에게 당신의 사랑을 일깨워 줄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

신디 알마라즈 앤서니, 미국 유타



갑자기 나보다 그 부인에게 꽃이 더 필요하다는 성신의 속삭임이 느껴졌다.



자주 함께 모일지며

부부 간의 가족 평의회

니콜 에크

교회의 평의회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들의 평의회부터 스테이크, 와드, 지부, 정원회 및 기타 지도자들의 평의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식을 따른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부부는 많은
문제와 결정 앞에
놓이게 마련이다.
이 가족 평의회는 여섯
가지 원리가 도움이
될 것이다.**

회장은 가족 평의회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평의회”라고 가르쳤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가족 평의회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이상적인 토론의 장”²이라고 가르쳤다. 그는 가족 평의회가 “가족의 필요와 가족 구성원 개인들의 필요에 대해 이야기하고, ……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 결정을 내리고, 날마다의, 또 장기적인 가족 활동과 목표를 세우는”³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가족 평의회를 해 본 적이 없다면, 오늘 시작하면 된다.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다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따로 가족 평의회를 하고 가족 및 개인적인 사안들을 긴밀히 의논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남편과 아내 간의 가족 평의회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와 실질적인 제안은 이렇다.

기도로 시작한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가 멈출 때, 배우자 사이의 대화 또한 멈춥니다.”⁴

주님은 우리의 결혼 생활에 중요한 참여자일 수 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받은 많은 축복과 배우자에 대해 감사드리고, 부부의 대화에 그분의 영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대화를 인도하고 좋은 감정과 훌륭한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

함께 결정한다

“주님의 도움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인 단합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와



토론으로써 평의회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⁵

우리는 배우자와 함께 중요한 결정, 예를 들면 일자리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어떤 학교에 지원할 것인지, 언제 자녀를 가질 것인지, 어떻게 집안일을 분담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남편과 아내는 가능한 해결책을 제안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다. 겸손하게 배우자의 의견을 듣는다. 그렇게 하면 다른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또한 여러분이 배우자의 의견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표현도 된다.

가족 평의회에서 우리의 중요한 결정은 “타협으로써가 아니라 하늘로부터의 일치된 영감에 의하여”⁶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사안에 대해 이러한 일치를 즉각 얻어 낼 수는 없을 것이다. 여러 차례 평의회 모임을 하고 개인적으로, 또 부부가 함께 진지한 기도를 드린 후에야 합의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기대되는 대로 평의회에서 논의한다면,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⁷이다.

가족 평의회를 미리 선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주제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럼으로써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는 생각을 좀더 잘 정리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평가한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태복음 7:3)

여러분에게는 오직 단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가족 평의회를 이용하여 배우자에 대한 비판을 늘어놓고 싶은 유혹을 받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보다는 자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소망으로 평의회에 접근해야 한다.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나 걱정되는 점이 있는지 배우자에게 묻는다. 자신의 발전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배우자에게 변화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다. 배우자가 세우고자 하는
개인적인 목표를 지지한다.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느 가정이나 문제점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가족은
비판이나 다툼을 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모색합니다.”⁸

견고한 결혼 생활은 문제를
간과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함으로써 확립되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가 생겨 논의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죄와 회개 문제나
재정 부담으로 분투해야 할 수도 있지만,
가족 평의회에서 나누는 솔직한 의사
소통은 격한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가족 평의회는 우려하는 일을
거론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적절하고
편안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집중하고 언쟁이나 비난을
피한다. 겸손해야 한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두 사람이 행복하고
영원한 결혼 및 가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음을 서로에게 상기시킨다.

긍정적인 자세

여러분이 가족 평의회를 소집하는
때가 오직 “힘든 시기이고 …… [가족
구성원의] 성취를 인정하거나 칭찬하지
않고 여러분의 사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가족 평의회를 피하고 싶은
것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⁹

가족 평의회 모임이 늘 문제나
결정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 평의회는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거나 여러분의 삶에서
받은 축복을 나누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개인적인 성취를 축하하고, 결혼
생활과 가족을 영적으로
강화할 방법을 의논하고,

함께 목표를 세우고, 배우자의 장점과
봉사에 대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과 배우자가] 의존할 수
있는 …… 의사 소통의 버릇과 상호
존중을 개발하기 위해”¹⁰ 가족 평의회를
활용한다.

인내한다

“우리가 매일 진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합시다. 우리의
불완전함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점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점을 더욱 용서할 수
있습니다.”¹¹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부족한 의사
소통 습관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데는 시간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처음 시도한 가족
평의회가 혹 어색하거나





주눅 드는 분위기가 될지라도 부부가 서로 소통하려고 겸손히 노력하고 두 사람이 내리는 결정에 주님을 포함시킨다면, 가족 평의회는 축복을 더욱더 잘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가정과 의사 소통이 평화롭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고 우리의 노력을 축복하신다.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존중과 이해와 단합의 분위기”¹²를 조성하고 그리하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약속처럼 우리 가정을 “지상의 작은 천국”¹³으로 만들 수 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유 김볼(2006), 211쪽.

2. M. Russell Ballard, *Counseling with Our Councils: Learning to Minister Together in the Church and in the Family* (2012), 165.
3. 엠 러셀 벨라드, “가족 평의회: 벨라드 장로 부부와의 대답”, *리아호나*, 2003년 6월호, 12, 14쪽.
4. 엠 러셀 벨라드, “가족 평의회”, *리아호나*, 2003년 6월호, 17쪽.
5. 로날드 이 포울맨, “신권 평의회: 물질적 및 영적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는 열쇠”, *성도의 빛*, 1980년 11월호, 134쪽.
6. 로날드 이 포울맨, “신권 평의회”, 134쪽.
7. Stephen L Richards, Conference Report, Oct. 1953, 86.
8. 에스라 테프트 벤슨, “성도들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 *성도의 빛*, 1994년 2월호, 4쪽.
9. When Thou Art Converted, Strengthen Thy Brethren (*Melchizedek Priesthood study guide*, 1974), 168.
10. “Family Councils: A Heavenly Pattern,” *Follow Me: Relief Society Personal Study Guide* (1989), 171.
11. 러셀 엠 넬슨, “언젠가는 실현될 온전함”,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88쪽.
12. “Working Together in Family Councils,” *Ensign*, Feb. 1985, 31.
13. 토마스 에스 몬슨, “행복한 가정의 표시”, *성도의 빛*, 1989년 1월호, 76쪽.

어떤 이야기를 할까?

가족 평의회에서 무엇에 관해 이야기할지 모른다면 다음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어떻게 일을 분담하여 각자가 가정에서의 책임을 공유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기분 좋게 여길 수 있을까?
- 집안에 어떤 종류의 매체들을 허용할 것인가?
- 우리가 가족으로서 함께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은 무엇인가?
- 말다툼을 없애기 위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우리는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 우리는 어떻게 지역 사회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
- 우리 가족은 어떤 새로운 전통을 시작할 수 있을까?
- 우리는 어떻게 재정 관리를 더 잘 할 수 있을까?
- 결혼 생활을 영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결혼할

크리스티안 헤글룬트

선 교 사업을 마치고 스웨덴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인생의 다음 단계, 즉 성전 결혼에 관해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내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확신을 영을 통해 받게 되었다. 영원한 동반자를 찾았다는 느낌, 주님이 내 결정을 승인하셨다는 느낌이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는 생각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나는 믿음이 흔들렸다. 여자친구 에블리나와 성전 인봉 날짜를 정하고, 신혼 여행을 예약하고, 약혼 반지까지 샀는데도 정작 약혼은 미루고 있었다. 결혼 약속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에블리나와 결혼하라는 명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행여 우리의 결혼이 잘못되면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두려움과 잘못된 기도로 나는 이 중요한 결정 앞에서 시야가 희미해져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험을 하면서, 나는 행함을 받기보다는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능동적으로 행하는 법을 배웠다.

선택의지 - 주님의 방법

교리와 성약 58편 26~29절에서 다음 성구를 읽었을 때, 성신의 속삭임이 느껴졌고 차츰 변화가 일어났다. “보라, 내가 범사에 명령해야 함은 적절하지 아니함이라. 무릇 범사에 강요당하는 자는 게으르[나니] …….

사람은 모름지기 훌륭한 대업에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의 자유의사로 많은 일을 행해야 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하느니라.

이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고 이로써

그들이 스스로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자가 되는 까닭이니 …….

그러나 명령을 받기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의심하는 마음으로 명령을 받고 그것을 게을리 지키는 자, 그는 정죄를 받느니라.”

이 구절을 상고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선택의지가 하는 역할을 이해할 수 있었고, 생각도 바뀌어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개인적인 노력 없이 영적인

용기

인도를 받는다면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할 때]” 오는 “반드시 필요한 개인적 성장”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다.¹

앞으로 나아갈 힘

그렇게 나는 신앙을 행사하여 결정을 내리기로 결심했고, 주님께서는 결정을 내리는 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축복해 주셨다.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 [나의] 자유의사로 많은 일을 행해야”하며 거기에 약혼도 포함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다스리라고 격려하신다. 이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삶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완벽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우리가 선택의지를 활용하는 것을 더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방안을 주셨으며,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결정하는 일에서 더욱 그렇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결정을 내릴 때 감정에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진지하게 숙고하면 정신과 마음이 강화되어 결혼 생활에서 최대의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희생과 나눔, 그리고 대단한 비이기심이 요구됩니다.”²

또한 경전에는 영적인 확인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나온다. “너는 네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만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옳은지를 내게 물어야 하나니, 만일 그것이 옳으면, 내가 네 가슴을 네 속에서 뜨겁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것이 옳은 줄

느끼게 되리라.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아니하면, 네게는 그러한 느낌이 없을 것이요, 도리어 생각이 둔하여[지리니]”(교리와 성약 9:8~9).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적인 확인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으로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각자는 그러한 확인을 받는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을 깨닫는 법을 배워야 한다.³ 이 방식을 따를 때, 선택에 관한 우리의 능력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아셨다 그분은 나에게 이러한 진리를 주셨고, 그 결과 모든 것이 달라졌다. 에블리나와 나는 결혼했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행복한 가정 생활을 꾸려 왔으며 예쁜 세 아이를 두었다. 나는 선택의지에 관한 나의 간증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선택의지가 하는 역할에 대해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린다. ■

글쓴이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산다.

주

1. 리차드 지 스코트, “영적인 인도를 얻음”, 리야호나, 2009년 11월호, 7쪽.
2. 스펜서 더블유 김볼, “결혼으로 하나가 됨”, 리야호나, 2002년 10월호, 36쪽.
3. 또한 교리와 성약 8:2~3 참조.

2015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그러므로 오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서는 자들아, 너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설 수 있도록 삼가 너희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교리와 성약 4:2)



오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서는 자들아

영혼을 다해 봉사함

본부 청녀 회장단

20 15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에서 배우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serve: 경전 구절 영어 원문에 쓰인 이 단어는 봉사하다, 섬기다 두 가지 의미 모두를 포함한다-옮긴이)은 거룩한 특권입니다. 올해 우리 각자가 구주께서 명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더욱 굳건한 결의로 봉사하는 법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에 대한 봉사는 그 동기가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무엇에 애정을 쏟을지, 시간을 어디에 쓸지, 어떤 흥미를 추구할지, 그리고 어떤 우선순위를 세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¹ 여러분은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께 여러분의 사랑을 보입니다.(교리와 성약 42:29 참조) 여러분은 가정에서 봉사하고 가족을 강화합니다.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성전에 가져갈 조상의 이름을 찾습니다.



보니 엘 오스카스, 회장(가운데); 캐롤 에프 맥콩키, 제1보좌(왼쪽); 닐 에프 메리엇, 제2보좌(오른쪽)

둘째, 우리는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하여 봉사합니다. 몸으로 하는 노동과 부지런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교 사업은 체력과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때 여러분은 능력을 다해 봉사합니다. “이를테면 주린 자를 먹이며, 벗은 자를 입히며, 병든 자를 찾아보고 구제하되,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그들의 필요에 따라 행함 같은 것입니다.”(모사야서 4:26)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하여 봉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깨끗하고 순수하며 구주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그분을 기억하겠다고 성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은 경전 공부와 기도를 통해 성신의 인도를 구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춘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또한 봉사하기에 합당하게 준비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힘을 얻는 한 가지 방법은 구주의 속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회개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엘마서 26:12 참조) 봉사할 때 여러분은 구주의 가능하게 하시는 권능을 느끼고 기적을 목격합니다.

여러분이 온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그분은 여러분이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영원한 영광을 받을 수 있게 준비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

이 기이한 일

본부 청남 회장단

나 서다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출항하는 배나 명분 있는 일에 참여하는 것, 여정의 시작 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설 때]”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여정에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와 그분의 일을 서두르며 기쁨 넘치는 훌륭하고 기이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해, 유타의 작은 마을에 사는 교사 정원회 청남들은 활동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청소년 활동 웹사이트(lds.org/youth/activities)를 찾아보았습니다. 청남들은 “7일간의 봉사(Seven Days of Service)”라는 활동에 특히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어려운 일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도움을 청하는 와드 회원 모두에게 일주일 내내 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신청한 가족이 열아홉이나 되자, 청남들은 다소 놀람기도 했고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결심을 굳힌 청남들은 그 가족들을 모두 돕기로 했습니다.

청남들은 단 한 주 동안 총 250시간을



데이비드 엘 벅, 회장(가운데); 래리 엠 김슨, 제1보좌(왼쪽); 랜달 엘 리드, 제2보좌(오른쪽)

봉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돌무더기를 치우고 모래 놀이터를 만들었으며 처마 흡통을 청소하고 장작을 쌓았습니다. 이 일로 청남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이 느낀 그 힘과 축복에 경외감마저 느꼈습니다. 청남들은 정원회 일원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기분이 들었고, 숙제를 하거나 다른 책임을 이행할 때도 하늘의 도움이 함께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교사 정원회는 와드에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이제 청남들은 그 일주일간의 봉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봉사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그 일에서 이 청남들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순수하고 정직한 노력으로 타인을 고양시키고 그들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지켜볼 때,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8쪽에 나오는 본부 청년 회장단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특권입니다.

바로 지금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교리와 성약 4:2)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서십시오. 여러분의 봉사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봉사하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올려 가족 및 친구들과 공유하고,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청소년 활동 사이트에 올려도 좋습니다. 이 기이한 일에 참여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독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지켜봅시다. ■

주

1. 에즈라 테프트 벤슨, “큰 계명—주님을 사랑함”, 성도의 빛, 1988년 7월호, 4쪽.

한 번에 한 걸음씩

이탈리아 청소년들이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이야기하다.

힐러리 올슨

알 다시피, 올해 상호 향상 주제는 봉사
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주님은 여러분에게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라(serve:
경전 구절 영어 원문에 쓰인 이 단어는 봉사하다,
섬기다 두 가지 의미 모두를 포함한다-옮김)고
말씀하셨다.(교리와 성약 4:2 참조) 매우 크고
부담스러운 법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느낄 필요가
없다.

이탈리아 타란토의 마르코 디는 말한다. “이건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산 전체를
단숨에 오른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한 번에 한
걸음씩 올라간다면 생각하면 훨씬 쉬워요. 한
걸음씩 앞으로 내디딘 다음, ‘해냈어!’ 하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피자와 파스타, 자갈길의 나라인
이탈리아의 남부에 사는 이
청소년들은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해 섬기려 노력할
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몇 가지
유용한 ‘걸음들’을 알아냈다.

영적 인도 구하기

영적 인도를 얻는 것은 주님을 섬기려 할 때 중요한 한 걸음이 된다. 15세인 다비드 시는 영적 인도를 받으려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다비드는 말한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야 해요. 영의 속삭임을 받고 따를 준비가 돼야 하고요. 그러려면, 항상 주님의 것들 가운데 머물러야 해요.”

다비드네 가족은 개종자이다. 다비드는 침례받기 전부터 경전 공부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형이 제일 먼저 침례를 받았고, 곧이어 부모님이 침례를 받으셨다. 다비드는 자신만의 간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다비드는 물몬경을 공부하면서 영을 느꼈다. 다비드는 그렇게 좋은 느낌을 받았기에 교회 회원이 되기로 마음 먹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도 다비드는 여전히 영의 인도에 의지한다. 다비드는 말한다. “한결같아야 해요. 경전 공부와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항상 순결하기

17세인 마르코 디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특히 순결의 법을 강조했다. 마르코는 말한다. “적은 사방에서 유혹하며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해요. 친구들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죠.” 몇 년 전에 마르코는 어울려 지내던 친구들을 멀리하고 새 친구를 사귀어야 했다. 어떤 것을 선택하려 할 때 그 친구들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세상이 기대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저를 받아들일 친구를 찾아야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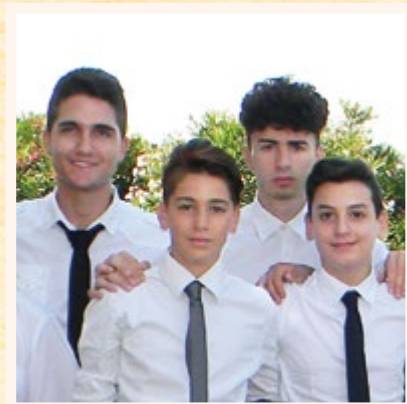
산을 오르다 보면 발을 헛디딜 때도 있기 마련이다. 그런 일이 생기면 “감독님을 찾아가서 솔직하게 말하세요.”라고 마르코는 충고한다. “감독님은 우리의 형제예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죠.”

순종하고 순결을 지키려 노력했기에 지금 마르코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들을 누리고 있으며, 또한 나중에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되고 있다.

시간 내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아는 17세의 마누엘 엠은 이렇게 말한다. “가끔 시험에 들어요. 다른 것을 하고 싶어지는 때도 있죠. 잠을 더 자고 싶기도 하고 축구를 보러 가거나 친구들과 놀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주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다른 일도 나쁘지는 않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해요.”

열네 살인 미리암 디는 매일 꾸준히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려면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 놓아야만 한다고 말한다. “시간을 따로 정해 두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뿐 아니라 주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릴 때, 유혹은 그만큼 줄고 우리는 더 강해져요.”

기꺼이 봉사하기

열다섯 살인 사브리나 디에게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란 부아나 보룬타(*buona volontà*: ‘호의’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옮긴이)를 품고 봉사한다는 의미이다. 즉,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행한다는 뜻이다.

12세인 알레시오 아이도 같은 생각이다. “그저 감독님이나 부모님 말씀이라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의무감을 느껴서도 안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의도로 봉사하기를 바라세요.”

어떻게 하면 더 *buona volontà*(부아나 보룬타)로 봉사할 수 있을까? “경전을 읽으면 도움이 돼요. 봉사가 옳은 일이라고 경전에서 배우니까요.” 사브리나의 말이다.

속죄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이해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 17세인 엘비사 디는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데 모든 것을 기꺼이 바쳐야 해요.”

다른 사람에게 초점 맞추기

자매지간인 16세 지울리아와 14세 베로니카는 타인에게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지울리아는 “봉사를 하면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면, 봉사를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축복을 받아요.”라고 말한다.

베로니카는 이렇게 말한다. “정말로 복음을 나누고 싶지만 준비가 안

됐다고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제가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자 주님께서 저를 도우시리라는 걸 알게 되면서 자신감이 더 커졌어요.”

지울리아와 베로니카의 봉사는 친구 버지니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두 자매는 버지니아를 교회 활동에 초대하기 시작했고, 버지니아의 가족을 자신들의 가족 활동에 초대하기도 했다. 곧 버지니아의 가족은 선교사들과 만나기 시작했다. 1년 후, 버지니아와 버지니아의 여동생이 침례를 받았다.

이제 버지니아는 교회 회원이며, 주변 사람을 도울 기회를 찾고 있다. 버지니아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고 싶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새로운 신앙을 놀릴 때면 버지니아는 누구와 이야기해야 하는지 알고자 기도한다. 어느 날, 버지니아는 한 친구와 이야기를 하라는 영의 속삭임을 느꼈다. “그 친구에게 물몬경을 주고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로 온 거예요! 지금 제 친구는 물몬경을 읽고 있어요.”

14세인 사무엘 디는 자신의 정원회

회원들을 강화할 기회를 찾는 중이다. “정원회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공과 시간에 분위기를 띄우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부끄럼을 타거나 참여하기를 주저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사무엘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려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이 앞으로 받게 될 책임에 대비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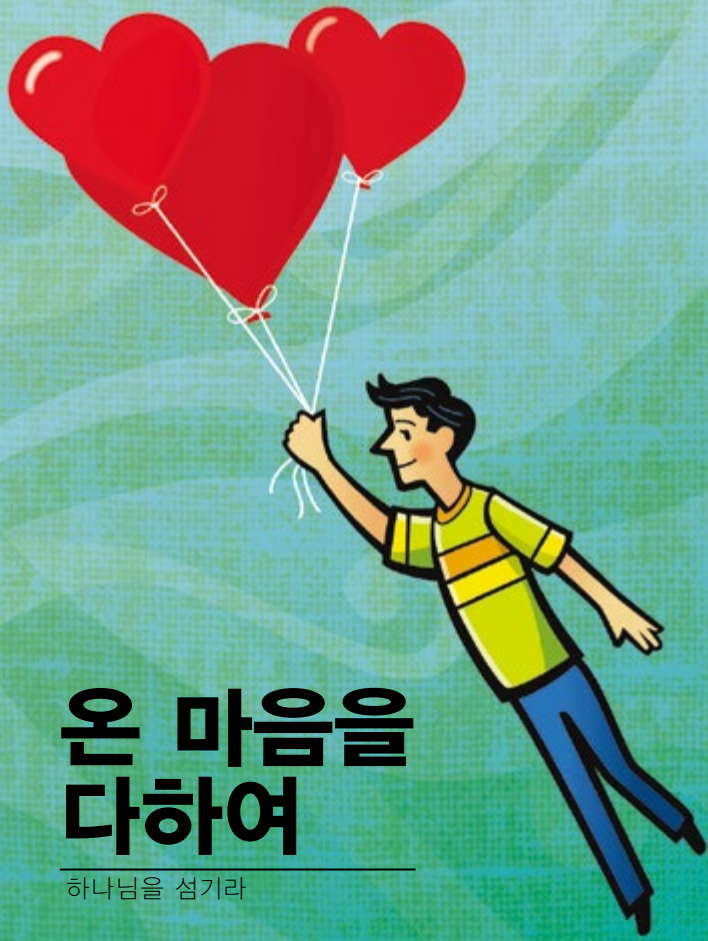
지금 시작하기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는가? 알레시오 아이는 말한다. “중요한 일을 하려고 나이 들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바로 지금 해야 돼요.”

바로 자신이 주님의 사업에서 귀중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여러분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옮겨 보자. 여러분은 모든 것을 바쳐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중요한 변화를 이뤄 갈 것이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온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온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온 생각을 다하여 섬기라

“사고력은 하나님이 준 은사이며, …… 우리의 사고 방식은 이 생 이후의 우리의 위치뿐 아니라 태도와 행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경전 안내서, “사고”, scriptures.lds.org) 우리가 훌륭한 것을 추구하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 따라 배움을 얻고 변화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 온 생각을 다해 섬기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 경전 및 선지자의 말씀을 공부한다.
- 다른 사람과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지식을 탐구한다. 특히, 우리의 의식을 드높이는 것들에 집중한다.
- 행복감이 드는 건전한 오락을 선택한다.
- 교회 역사나 조상 등 의미 있는 주제로 탐구한다.
- 성찬식에서 구주께 생각을 집중한다.
- 일지를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온 마음(Heart)을 다하여 섬기라

심장(Heart: 경전 구절 영어 원문에 쓰인 이 단어는 심장, 마음 등의 의미로 쓰인다-옮긴이)은 생명을 유지하는 곳이다. 흔히 사물의 중심이나 핵심을 뜻하는 “심장(마음)”은 소망과 감정이 머무는 곳이기도 하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그분께 모든 소망과 의지, 사랑을 드린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분을 사랑하라고 요청하신다. 여기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도 기도, 경전 공부, 교회 참석을 우선시한다.
- 집이나 학교에서 다른 사람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친절히 대한다.
- 시간을 내어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함께한다.
-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 다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한다.
- 혼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옆에 앉는다.

온 힘을 다하여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힘은 모든 힘을 그분께 드릴 때 생긴다. 힘이란 영적 권능, 내적 결심, 회복력, 그리고 근면한 선행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구주께서 몸소 실천하신 원리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의 저력이 드러난다. 그럴 때 신성한 영적 힘이 주어진다. 온 힘을 다하여 섬기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 집중해서 경전을 공부한다.
- 와드 또는 지부 회원들과 협력하여 일한다.
- 도덕적 표준을 굳건히 지킨다.
-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성신의 속삭임에 따라 행한다.
- 의롭게 살기로 결심하고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 영양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여 신체를 돌본다.
- 더 큰 영적 힘을 얻기 위해 성약을 지킨다.

온 능력을 다하여 섬기라

능력을 다해 섬긴다는 것은 그 초점을 다른 사람에게 둔 채 영적, 현세적으로 힘 닿는 대로 일한다는 뜻이다.(무거운 소파를 들어올리는 일에서부터 시련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이든 자신의 모든 재능을 다른 사람을 강화하는 데 쓸 수 있다. 온 능력을 다해 섬기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 “오늘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자문해 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다.
- 현관 쓸기, 방 치우기, 설거지 등 다른 사람에게 도움 되는 일을 한다.
- 자동차나 컴퓨터 고치기, 방 꾸미기, 선물 만들기, 시 쓰기 등 자신의 재능을 활용한다.
- 친구가 되고 좋은 모범을 보이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 배운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

섬기는 일에 나서라

“그러므로 오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서는 자들아,
너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설 수 있도록
삼가 너희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고리와 성약 4:2)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이유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이해할 때, 그분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신다.



주일학교 공과

.....
이번 달 주제:
신회

마이클 알 모리스
교회 잡지

초 근에 블로그 게시물을 하나 읽었는데, 구주가 일상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한, 글쓴이의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나는 글쓴이가 자신의 감정을 기꺼이 나눠 주어 흐뭇했는데, 한 누리꾼의 이런 댓글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내 삶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당치 않은 말이다. 결국, 우리는 모두 구주가 필요할 것이다. 누구나 스스로 바로잡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혼자서는 치유할 수 없는 상실을 겪으며,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롭힘, 슬픔과 부담, 낙담을 경험한다.

그러나 정말 다행인 것은 그것을 우리 힘만으로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을지 모릅니다. ‘이게 어떤 건지 아무도 모를거야. 아무도 이해 못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각자의 짐을 느끼고 짊어져 보셨기에, 온전하게 알고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무한하고 영원한 희생으로(엘마서 34:14 참조), 그분은 완벽하게 공감하시며 자비의 팔을 우리에게 뻗으실 수 있으십니다.”¹

예수님은 중요한 분이시다. 그분의 속죄, 가르침, 소망, 화평, 모범에 힘입어, 우리는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과 그분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신앙으로 전진할 수 있다.

회개의 길을 열어 주신 예수님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자 하는 이에게 그분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은 모두 완전하지 않으며 속죄를 통해 주어지는 회개의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심을 잃거나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 올바른 길로 돌아가기에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겼으면 하는 것은 사탄의 바람이다. 또한 사탄은 이 복음이 “회개의 복음”(교리와 성약 13:1; 강조체 추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실재하므로, 회개한 죄인은 용서받고 깨끗해질 수 있다”²는 것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은 누구에게나 허용되지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때에만 우리 삶에 작용한다.



친구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다고 상상해 보자. 그 선물은 친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며 여러분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직접 대가를 치렀다. 그런데 친구는 “고맙지만 네 선물을 받고 싶지 않아.”라고 말한다. 기분이 어떨까?

회개를 통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진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

일찍이, 수많은 사람들이 더는



그분과 함께 걷지 않겠다고 하자, 예수께서는 십이사도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에 베드로는 대답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요한복음 6:67~68)

우리는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리고 성신의 속삭임을 통해 구주께서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은 “이 생에서[의] 행복[과] 장차 올 세상에서[의] 영생”³의 기초를 확립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길잡이와도 같다.

구주께서 가르치신 위대한 진리란 무엇일까?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최근 연차 대회 말씀에서 네 가지를 언급하셨다.

-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주셨[다.]”
- “속죄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
- “우리는 질병이나 장애에서 자유로운, 영광스럽고 완전한 불멸의 몸을 갖게 될 것[이다.]”
- “충만한 행복과 기쁨이 우리의 슬픔과 상실의 눈물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⁴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면 주님을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그분을 신뢰하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희망을 얻을 수 있다.

진 에이 스티븐스 자매님의 와드

회원인 게트렐 가족도 그러한 경험을 했다. 본부 초등회 제1보좌인 스티븐스 자매님의 말씀에 따르면, 게트렐 형제님이 암 진단을 받은 뒤에도 그 가족은 복음과 성전 성약에 충실했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생 이후에도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은 것이다.

게트렐 자매님은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힘든 나날을 보내며 이렇게 말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주님을 신뢰하면, 인생의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어요.”⁵

속죄의 은사에서 우리는 시련 또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고통받을 때 필요한, 영생에 대한 희망을 얻을 수 있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구주이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주어지는 위대한 은사와 축복으로, 지구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부활을 약속받고 영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⁶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자연 재해를 겪었거나 무분별한 험담의 대상이 되고,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고, 친구와 사이가 틀어지고, 옳은 일을 위해 맞서 본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앤더슨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구주의 평안은 세상의 현기증 나는 회오리바람을



이겁니다.”⁷

최근 연차 대회에서 앤더슨 장로님은 전통적인 결혼관을 옹호하다 조롱당하고 낙인이 찍힌 월계반 청년 이야기를 소개했다. 그 청년은 그러한 조롱이 “하나님께 충실하고 그분의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충실”⁸하기 위해 치르는 대가를 의미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맞선다는 말이 꼭 홀로 서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외롭고 힘에 부치며 슬프고 걱정스러우며 두렵고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언제나 평강의 왕께 의지할 수 있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영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는다.
- 성전에 간다.
- 안식일 모임과 세미나리에서 구주의 생애를 공부한다.
-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그분의 속죄를 적용한다.
- 주님에 대해 간증한다.

구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느끼면,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진다.(요한복음 14:26~27 참조)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의 선생님이신 구주만이 우리의 시련과 아픔, 고통의 깊이를 아십니다. 역경의 시기에 영원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상한 영혼을 위안의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실 분은 그분뿐이십니다.”⁹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성역을 통해 단순히 행복의 길을 알려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주님은 속죄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주님은 가르침을 통해 영원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주님은 완전한 삶을 통해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 살았던 존재 중 가장 위대한 모범이십니다. 그분의 필멸의 성역은 가르침과 봉사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완벽한 모범을 따르도록 권유하고 계십니다.”¹⁰

구주께서 회개와 부활의 길을 여시고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시며, 소망과 평안을 주시고 완전한 모범을 보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분은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신다. 아울러 우리는 그분과 친구가 되고, 두려움을 몰아내며 신앙으로 전진할 용기를 얻게 된다. ■

주

1.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시매”, *리야호나*, 2014년 5월호, 90쪽.
2.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리야호나*, 2014년 5월호, 113쪽.
3.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야호나*, 2000년 4월호, 3쪽.
4. 디아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리야호나*, 2014년 5월호, 76쪽.
5. 진 에이 스티븐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리야호나*, 2014년 5월호, 83쪽.
6. 헨리 비 아이어링, “참으로 값진, 소망의 유산”, *리야호나*, 2014년 5월호, 24쪽.
7. 닐 에이 앤더슨, “영적인 회오리바람”, *리야호나*, 2014년 5월호, 21쪽.
8. 닐 에이 앤더슨, “영적인 회오리바람”, 19~20쪽 참조.
9. 토마스 에스 몬슨,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리야호나*, 2013년 11월호, 87쪽.
10. 리차드 지 스코트, “본을 보였노라”, *리야호나*, 2014년 5월호, 35쪽.

대화에 참여하세요

일요일에 깊이 생각할 것들

-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축복했는가?
- 위안이 필요할 때 찾는 예수님 말씀은 무엇인가?
- 성신을 통해 구주의 평안을 느낀 적이 있는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

- 구주의 모범이나 가르침이 올바른 일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를 일지에 기록한다.
- 성찬을 취할 준비를 하기 위해 속죄에 대한 공부를 한다.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느끼는 바를 가정과 교회, 소셜 미디어에서 나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영원한 목표를 성취하는 법

지 상에서의 사명을 완수할 때
여러분에게 기쁨을 안겨 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 명예롭게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될 영원한 목표 중 몇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1. 자주 기도하는 가운데, 가족,
직업, 지속적인 교육, 취미, 오락
등 삶의 여러 측면에서 균형
있게 생활하면서 **성전 결혼을
하고 영원한 가족 관계를
구축하십시오.**
2. 항상 인생의 기쁨을 쌓는 가운데,
충직하고 순종적으로 **복음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침례 및 성전
성약에 충실하십시오.**
3. 왕국의 것은 영원하나, 세상의 것은
세속적이고 일시적임을 기억하여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4. 평생에 걸쳐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항상 사랑과 여러 도움이 필요한
궁핍한 사람들을 돌볼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시간을 들여 집중해서
이루어야 할 일생의 목표입니다. 목표만
세워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취하려는 것과 여러분이 이루려는
목표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을
내서 그것들을 적고 여러 해에 걸쳐
그것을 검토하십시오. 그런 다음
이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과
내일, 다음 주와 다음 달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몇 시간에 걸쳐서 자문해
보십시오.

이렇게 중요하고 영원한 목표를
선택하고 구체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똑같이 중요한 문제로,
이 목표를 성취할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기억하십시오. 시간은
계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는 영원한 것들을 성취할

시간이 무한히 많아 보일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누구나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이라. 참으로 보라 이 생의
날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수행할
날이니라.”(앨마서 34:32)

비결은, 신성한 영감을 통해
세운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활동을 지혜롭게 선택하고, 영원한
종착지로부터 관심을 돌려놓거나
멀어지게 하는 것은 배제 할 수 있는
성품과 확신의 힘을 갖는 것입니다.

시간을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인생의 사명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상에서의 시간은 충분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그렇게 하기에 여러분이
아직 젊을 때인 지금보다 더 나은 시기는
없습니다.(앨마서 37:35 참조) ■

2004년 12월 11일 브리검 영 대학교-아이다호
졸업식 연설에서 발췌함.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십시오

youth.lds.org에서 여러분이 영원한
목표들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나누고
다른 청소년들의 경험을 읽어
보십시오.





내 삶의 중심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성역은 알고 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이 미대륙을 방문하셨던 것일까?

로베르토 파체코 프레텔

내가 열여덟 살이 되자 아버지는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 나는 몇 군데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삼촌이 자매 선교사들을 집에 초대하셨다. 선교사들은 강한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몰몬경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미대륙을 방문하셨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때까지 그런 사실은 공부한 적이 없었기에 나는 선교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이라며 내 의견을 말했다. 그러자 자매 선교사 중 한 명이 눈물을 머금고서 친절하게 답했다. “로베르토 형제님, 형제님이 몰몬경이 참됨을 알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아는 것은 달라지지 않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성지에서처럼 이 대륙에서도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아요.”

선교사들은 첫 번째 토론에서 내가 궁금해하고 의심스러워하는 많은 문제를 풀어 주려 애썼고, 다음 주에 다시 오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몰몬경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표제지를 읽는데, 눈길을 사로잡는 문구가 있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에 자기를 나타내신다.” 미대륙을 방문하신 구주의 이야기가 나오는 제3니파이 11장도 읽었는데, 나는 마음속에 전해지는 기쁨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들 말대로 해 보기로 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책이 참된지 여쭙어 본 것이다.

기도를 마치자 이 책이 참되다는

확신과 평안이 찾아왔다. 순간, 자매 선교사들의 눈물이 나를 감동시켰고, 그것으로 내가 그들의 간증을 믿게 됐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새벽 4시를 넘어서까지도 몰몬경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강하게, 그리스도께서는 미대륙에 오셨으며, 내가 참된 복음을 더 배우기 바라신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몇 주 만에 몰몬경을 다 읽었으며, 참된 교회에서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몰몬경 덕분에 나는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둘 수 있었다. 내 인생길에서 선교사와 그분의 교회를 만나게 해 주신 주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글쓴이는 페루 아레퀴파에 산다.

미대륙을 방문하신 예수 그리스도, 존 스카트, 바움 텍스처 이미지, iSTOCK/THINKSTOCK

해답을 찾아서



예전에 저는 나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변화했고,
또한 복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쁜 평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으로 감동을 받아 회개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신다니, 정말 훌륭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나오는 권능을 통해 일어난 것임을 기억하세요. 주님의 도움으로 새 사람이 되어 과거의 평판을 바꿔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복음을 나누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평판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상처 준 사람에게 사과하십시오.
- 이전 같으면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을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 항상 참되고 성실하십시오.
- 어울리는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친절하면, 그들을 말리거나 그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그 친구들과 같은 부류로 여길 것입니다.
- 모로나이 7장을 공부하고 사랑을 지니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

구주께서는
다툼은 정신은 악마에게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제3니파이 11:29 참조)
동조하지 않는 것과 다툼은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른 것은 정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때로 믿음에 반하는 것에 직면하여 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화 내거나 억울해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 않으면서 사실에 근거하여 긍정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논쟁을 초래할 만한 갈등은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걸까요?
“반감을 사지 않고

반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다툼을 피하려면 먼저 동기와 소망이 필요합니다. 경전에서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잠언 13:10)라고 말합니다. “논쟁에서 이기거나” “옳다고 증명”하는 데만 신경 쓰면, 심중팔구 다툼의 정신이 뒤따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벨슨 장로는 다툼을 피하는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1) “다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십시오”, (2) “개인적인 이익이나 영광을 누리기 위해 논쟁적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십시오”, (3)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¹ 이렇게 하면 다툼의 정신 대신 주님의 영을 지닐 수 있습니다. ■

주
1. 러셀 엠 벨슨, “분쟁의 해독”, 성도의 빛, 1989년 7월호, 86쪽.

최고의 선물

나는 친구에게 최고의 생일 선물을 주었다.

마리엘라 로드리게스

내가 열세 살 되던 해에, 선지자는 교회 회원들에게 연말까지 남은 5개월 동안 물몬경을 읽으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 어느 날 버스에서 물몬경을 읽는데, 옆 자리에 앉은 신시아가 나에게 무슨 책을 읽느냐며 물어왔다. 나는 그것이 물몬경이라는 특별한 책이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연말까지 다 읽고 싶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신시아는 계속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았고, 나는 우리 집에 가서 물몬경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자고 제안했다. 신시아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그 후 며칠 동안 오랜 시간을 들여 물몬경과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다음 월요일에는 신시아를 가정의 밤에 초대해서 선교사를 소개해 주었다. 신시아는 선교사들과 토론을 시작했고, 예배 모임을 비롯해 청소년 활동과 다른 교회 모임에도 모두 참석하기 시작했다.

신시아는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고 부모님의 승낙을 얻어 그해 생일날 침례를 받았다. 신시아는 그것이 지금까지 받은 생일 선물 중 최고라고 내게 말해 주었다. 침례식에는 신시아의 어머니와 남매들도 함께했다. 신시아는 내게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찬송가, 31장)을 불러 달라고 부탁했고, 우리 아버지한테는 침례 집행을 부탁드렸다. 신시아가 물에서 나왔을 때,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그때 느낀 행복이

얼마나 크던지, 난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이듬해 우리 가족은 이사를 했다. 신시아와 나는 복음 안에서 좋은 친구이자 자매였기 때문에 헤어지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가까이 살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좋은 친구이다. 전화 통화를 자주 하는데, 최근에 신시아는 어머니가 선교사 토론을 한다는 소식을 알려 주기도 했다. 전에는 토론을 하지 않으려 하셨던 분이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무척이나 기뻐했다. 신시아는 언젠가 온 가족이 모두 교회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게 교회를 알려 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했다. ■
글쓴이는 미국 텍사스에 산다.



삽화: 타미아 폴리

도움의 손길 모아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은
날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방법을 찾으며 사랑을
표현하지요!



과자와 꼭두각시 인형

우리 가족은 “봉사 기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오빠와 남동생과 함께 고아원 어린이들에게 줄 꼭두각시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 아저씨들에게는 초콜릿 칩 과자를 갖다 드리고, 호수 주변 청소도 했습니다. 그런 봉사를 할 수 있어서 무척 기뻐했습니다!

토빈 피, 9세, 미국 아이다호



행복한 노래

우리는 봉사를 위한 특별한 날을 계획해서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노래를 포함해서 몇 곡을 부르자,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분은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직접 만든 카드를 드리고 그분들을 꼭 껴안아 드렸습니다. 포르투갈 레이리아 지방부



성탄절보다 좋은 날

엄마 아빠가 긴 하루에 지쳐 주무시고 계실 때였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주방 바닥과 식탁, 조리대를 치웠습니다. 거실과 놀이방도 청소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일어나셨을 때, 두 분은 오늘이 성탄절보다 더 행복한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캠브리 지, 11세, 미국 조지아



손바닥 그림을 보내 주세요!

전 세계에 필요한 도움을 다 주려면, 얼마나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까요? 선한 일을 하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 주세요!

1. 종이에 손을 대고 그린 후 오리세요.
2.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도운 일이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도운 일을 적으세요. 큰 봉사도 좋고 작은 봉사도 좋아요.
3. 여러분 사진을 붙이세요.
4. 부모님 등 어른에게 부탁해서 liahona@ldschurch.org 또는 3쪽에 있는 주소로 보내 주세요.

지금부터 2015년 10월까지 도움의 손길을 모을 거예요.

양말 상자 프로젝트

노숙자들의 겨울은 특히 더 춥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툼한 양말을 모아 근처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청남 청년들의 도움으로, 상자는 금세 노숙자들에게 전달할 수백 켤레 양말로 가득 찼습니다!
캐나다 알버타



신약전서 읽기 목표

예수님께서, 자신이 돌보는 양을 사랑하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목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신약전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68쪽에 있는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그 주에 해당하는 숫자에 색칠하세요. 매주 읽는다면, 연말까지 모두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어른에게 부탁해서 이 도표를 떼어 내거나 liahona.lds.org에서 인쇄하세요. ■





“신약전서 읽기 목표”에 대한 주별 독서 과제(66~67쪽 참조)

주	읽기	
1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길을 예비함 마태복음 3:1~6; 누가복음 1:5~25, 57~80	26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마태복음 27:52~53; 28:1~20; 누가복음 24; 요한복음 20; 사도행전 1:3, 9~11; 고린도전서 15:5~6, 22
2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마태복음 1:18~25; 누가복음 1:26~38; 2:1~20	27 내 양을 먹이라 마가복음 16:15; 요한복음 21:1~17
3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마태복음 2; 누가복음 2:21~52	28 오순절 요한복음 14:25~27; 사도행전 2:1~24, 32~33, 36~47
4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마태복음 3:13~17; 요한복음 3:5	29 사도 베드로 마태복음 4:18~19; 14:22~33; 16:13~17; 17:1~9; 누가복음 22:31~34, 54~62; 사도행전 3:1~9, 19~21; 4:6~20; 5:12~42
5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함 마태복음 4:1~11; 마가복음 1:12~13; 누가복음 4:1~13	30 바나바, 아나니아, 삽비라, 순교자 스테반 사도행전 4:32~5:10; 6; 7:54~60
6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 마태복음 21:12~14; 누가복음 19:45~48; 요한복음 2:13~16	31 베드로와 고넬료 사도행전 10:1~11:18
7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부르심 마태복음 4:18~22; 16:13~19; 마가복음 3:13~19; 16:15; 누가복음 5:1~11; 6:12~16	32 사울의 개종 사도행전 7:57~60; 8:1~3; 9:1~30; 26:9~23
8	산상수훈 마태복음 5:1~6:4; 7:12; 누가복음 6:17~36	33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 사도행전 13:4~11, 14~43; 14:5~10
9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에 관해 가르치심 마태복음 6:5~13; 7:7~11; 26:36~46; 누가복음 9:28~29; 11:2~4, 9~13; 야고보서 1:5~6	34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사도행전 15:36~41; 16:16~34
10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를 고치심 마태복음 8:5~10, 13; 25:34~40; 마가복음 1:40~45; 누가복음 4:38~40; 7:1~17; 요한복음 4:46~54; 13:34~35	35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 사도행전 18:23; 19:1~7, 11~12, 20
11	예수 그리스도와 안식일 마태복음 12:1~13; 마가복음 2:23~28; 3:1~6; 누가복음 13:11~17; 14:1~6; 요한복음 5:2~16	36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임 사도행전 1:9~11;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1:1~4, 21~55
12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권 권능으로 사람들을 축복하심 마태복음 14:23~33; 마가복음 4:35~41; 6:33~44; 누가복음 9:37~43; 사도행전 10:38	37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쓴 편지 로마서 1:16; 8:13~18, 31~39; 12:3~21
13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심 마가복음 2:1~12; 5:21~43	38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6:19~20; 12:4~27; 13; 15:20~22, 40~42
14	씨 뿌리는 자, 그리고 밀과 가라지 마태복음 13:1~9, 18~30, 37~43; 마가복음 4:14~20; 누가복음 8:11~15	39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4:5~18; 9:6~8; 12:6~10
15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탕자 마태복음 18:12~14; 누가복음 15장	40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쓴 편지 갈라디아서 2:16~21; 5:22~23; 6:7~10
16	선한 사마리아인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마태복음 7:24~27; 22:34~40; 누가복음 6:47~49; 10:25~37	41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편지 에베소서 1:3~12; 4:11~16; 6:10~18
17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환자 열 명과 눈먼 사람 한 명을 고치심 누가복음 17:12~19; 요한복음 9장	42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 빌립보서 1:2~11; 2:12~13; 4:4~13
18	선한 목자 마태복음 19:13~15; 마가복음 10:13~16; 요한복음 10:1~18	43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쓴 편지 골로새서 1:9~20; 3:1~16
19	자비롭지 못한 종 마태복음 6:12, 14~15; 18:21~35	44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 데살로니가전서 2:1~12; 4:1~7; 데살로니가후서 2:1~4; 3:10~13
20	열 처녀, 달란트, 과부의 헌금 마태복음 25:1~13, 14~46; 마가복음 12:41~44; 누가복음 21:1~4	45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전서 1:12~17; 5:1~3; 디모데후서 3:1~5, 14~17
21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심 요한복음 11:1~46	46 바울이 디도와 빌레몬에게 쓴 편지 디도서 1:1~4; 2; 빌레몬서 1:3~9
22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입성과 마지막 만찬 마태복음 21:1~11; 마가복음 14:12~26; 누가복음 19:29~38; 22:15~20	47 바울이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쓴 편지 히브리서 1:1~6; 5:1~4; 11:1~11; 12:1~2
23	갓세마네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6:36~46; 누가복음 22:40~46; 요한복음 3:16; 15:12~13	48 야고보의 가르침 야고보서 1:5~6; 2:17~18; 3:2~13; 5:12
24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반당하고, 체포되고, 심문받으심 마태복음 26:14~16, 47~27:31; 누가복음 22:47~23:25	49 베드로의 가르침 베드로전서 1:3~11; 3:18~20; 4:6; 베드로후서 1:2~8
25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매장되심 마태복음 27:32~66; 누가복음 23:26~56; 요한복음 10:17~18; 15:13; 19:13~42	50 요한과 유다의 가르침 요한1서 2:1~6; 3:10~18, 23; 4:7~10; 5:1~3; 2 요한2서 1:4; 3 요한3서 1:4; 유다서 1:20~22
		51 요한의 계시 요한계시록 1:1~3; 2:7; 4; 12:7~9; 20:12
		52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 예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시라 마태복음 11:28~30; 요한복음 4:3~14; 6:35~51; 8:12; 14:6, 15

선한 일을 하는 데 시간을 쓰기

클레이튼 더블유, 10세, 미국 미주리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때로 무척
춥고 눈도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가끔은 학교에 못 가고 집에 있는데, 그럴
때에는 집 옆에 있는 큰 언덕에서 썰매를
탑니다. 하루는 방한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려 하는데, 어머니께서
날씨가 너무 춥고 바람이 불어서
밖으로 나갈 수 없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집
안에만

있는 게 좀 짜증스러웠습니다. 제가
불평을 하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방으로 돌아가서 선한 일을 하는 데
시간을 쓸 방법을 찾아보렴.”

저는 방에 들어가서 구주께서
제가 어떤 일을 하길 바라실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신앙개조를 외우기로 했습니다. 몇
시간 후,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어머니와 형과 누나에게 짜증을 내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신앙개조를 모두
외웠다고 말했습니다.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한 조 한 조를
다 암송했고, 선한 일을 하는 데 제
시간을 써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 뜻밖에 생긴 시간에
구주에 관해 좀 더 배우겠다고
결심한 것에 대해서 구주께서도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가족과 경전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알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우리들 이야기



우리 와드 감독님으로 봉사하시는 저의 아버지는 제게 침례를 주시기 전에 저와 접견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가장 친한 학교 친구와 그 가족을 침례식에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네 가족은 제 침례식에 참석해 주었습니다! 전 그 특별한 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프라인 더블유, 8세, 스페인



저는 가족 역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조상들의 이름을 찾는 법을 압니다. 저는 성전 사업이 필요한 조상들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 일은 주님의 사업에서 제가 맡은 부분입니다.
스티븐 에스, 6세, 필리핀



로라 디, 8세, 브라질



특별한 증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입니다.

경전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경전은

-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 희망과 지식을 줍니다.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도록 돕습니다.
- 영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규칙적으로 경전을 읽으면,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경전을 배우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

“영적인 보호의 열쇠”,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26~28쪽에서 발췌함.

비밀



제시카 라슨
실화에 근거함

“바칠 것 어디든지 있으리”
(어린이 노래책, 116장의 3절)

“아 이비는 안 돼! 재는
여자에잖아.” 브래든이 아담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그날 피구 경기에서 주장을 맡은
아담은 팀원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난
아이비를 뽑았다니까.” 아담이 좀 더
큰 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다른 팀의
주장인 타일러가 비웃었습니다. 가르시아
코치님마저도 아담이 선택한 두 번째
팀원에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이비도 마찬가지로 깜짝 놀랐지만,
수줍게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브래든이 불평을 해 댔습니다.

아이비는 그냥 평범한 여자애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비는 반에서 가장

작은 여자아이입니다. 그리 재빨라
보이지도 않고, 공이 아이비보다 더 클
것도 같았습니다. 아이비가 걸어 나오자
브래든은 “아마 공도 제대로 못 들걸.”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어쩌면 아이비가
우리 팀의 비밀 병기가 될지 몰라.” 하고
말하며 확신을 심어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아이비를 뽑은 이유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비는 운동
시간에 항상 꼴찌로 선택되는 것이
싫다고 아담에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애들은 아이비를 놀려대지만,
아담은 부모님에게서 남자는 여성에게
존경심을 보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이비를 뽑은

것이었습니다. 반에서 가장 덩치 큰
남자애를 선택하는 타일러를 보면서,
아담은 자신의 결정이 옳은 것이기를
빌었습니다.

팀이 꾸러지자, 가르시아 코치님은
호각을 불었고, 두 팀은 경기장 양쪽
끝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르시아
코치님에게 공을 건네받은 타일러는
아담의 팀을 훑어본 후 아이비를
겨냥했습니다. 타일러는 팔을 뒤로
젖히더니 힘껏 공을 내던졌습니다.

퍽! 누구도 맞치지 못한 공이 땅에
곤두박질친 후 튀어 올랐습니다.
아담은 믿기지 않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이비는 제때에 짹째 움직였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깜짝 놀란 듯했지만,

병기



사람들은 모두 아이비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아담은 그저 씩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아이비를 뽑은 건 정말 잘한 일이 될 테니까요.

경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타일러는 계속 겨냥해서 공을 던졌지만, 아이비는 재빨리 이리저리 몸을 움직여 피했습니다. 아무도 아이비를 맞힐 수 없었습니다. 타일러와 몇몇 아이들은 아이비를 공격하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맞히는 데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활짝 웃었습니다. 아이비는 작고 빨라서 공으로 맞히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사실 아이비의 체구는 피구에서 더 빛을 발했습니다.

결국 아담의 팀이 이겼습니다. “비밀

병기가 맞았어.” 브래든이 말했습니다.

“아이비가 정말 잘하던데.”

“맞아.” 타일러가 말했습니다.

“다음번에 우리 팀에 넣어야지.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거야!” 아이비는 팀원들에 둘러싸여 교실로 돌아가면서 싱글벙글했습니다.

아담은 친구들을 뒤따라가면서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이 아이비에게 친절을 베푼 것은 결국 다른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을 더 존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비밀 병기는 별다른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친절을 베푼는 것이었습니다. ■

글쓴이는 미국 애리조나에 산다.



실패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르기에 공헌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실패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제일회장단 제1보좌, “아이들이 높은 목표를 세우도록 도와주십시오”,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60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는 여행



여러분은 올해 초등회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놀라운 여행을 하며, 신약전서의 각 장에서 그분의 삶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들도 역시 각 반에서 신약전서를 공부할 것입니다. 다음 몇 가지 활동은 여러분과 가족이 함께 신약전서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과 대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신약전서를 공부하는 것은 왜 중요하고 재미있을까요? 구주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것은 우리가 더 강하게 되는 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반드시 개개인에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그 후에 “신약전서(The Books of the New Testament)”(*Children’s Songbook*, 116: 찬송가 18장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의 선율에 신약전서 각 책의 이름을 순서대로 붙인 초등회 노래—웁긴이)를 부릅니다. 신약전서의 각 책의 이름을 적은 카드를 만들어 순서 맞추기 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노래와 성구

- “들려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를”(어린이 노래책, 36장)
- 마태복음 11:29

경전 공부 도움말

경전에 표시를 해 두면 나중에 좋아하는 구절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연필이나 펜 또는 색연필을 사용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절에 밑줄을 긋거나 각 절의 숫자에 동그라미를 그려요.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사용할 영어 또는 스페인어로 된 신약전서 한 권을 store.lds.org에서 2.50달러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로 된 성경전서는 한국 배부 센터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ds.or.kr/물품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웁긴이)

더 알아보기

마리아와 요셉은 호적하러 이곳에 왔다.

더 알아보기

예수님을 시기하는 헤롯 왕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안전한 곳을 찾아 이곳으로 예수님을 데려갔다.

더 알아보기

마태복음 2:23

더 알아보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목자와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이곳에 왔다.

더 알아보기

마태복음 2:14

더 알아보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그리고 12살이 되셨을 때 다시 이곳에 예수님을 데려왔다.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남아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더 알아보기

마태복음 2:1

더 알아보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마리아는 이곳에 살고 있었다.

더 알아보기

헤롯 왕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 큰 도시에 성전을 지었다.

더 알아보기

이 나라는 이스라엘에서 가깝다.

더 알아보기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이곳에서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사셨다.

더 알아보기

누가복음 2:42~49

예수님이 거니셨던 곳

차례로 “더 알아보기” 카드 중 한 장을 뽑습니다. 카드에 적힌 내용을 읽거나 경전 구절을 찾아 읽습니다. 그런 후에 지도상의 장소와 카드를 맞추어 봅니다.



나사렛



이집트



예루살렘

베들레헴





로즈메리 위کم
본부 초대회 회장

아버지의 상위 10가지 목록

“이것이 …… 만민에게 주는 구원의
계획이니라”(모세서 6:62)

한 번은 제가 청년 공과에 참석했을
때, 교사가 반원들에게 삶의
상위 목표 10가지를 적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적은 내용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2살이 된 지 얼마 안 된 아버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록은 이러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계획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은 그곳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

“듣고 이야기할 시간을 내십시오.”
리아호나, 2012년 4월호, 37쪽에서
발췌함.

1. 대학에 진학하기.
2. 실내 디자이너 되기.
3. 인도에서 선교 사업 하기.
4. 귀환 선교사와 성전에서 결혼하기.
5.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다섯 명 두기.
6. 자녀들이 선교 사업을 하고 대학에
진학하게 하기.
7. “과자를 나누어 주는” 할머니 되기.
8. 손자손녀들의 응석 받아 주기.
9. 복음에 관해 더 배우고 삶을 즐기기.
10.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가서 함께 살기.

여러분의 상위 10가지 목록

여러분의 삶에서 10가지 목표를 적어
보세요. 그런 다음 일지나 벽에, 또는
여러분이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
두세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2:42~47

이 종이를 두꺼운 종이나 마분지에 풀로 붙이세요. 그런 다음 인물들을 오려 내어 공예용 막대나 종이 봉투에 붙이세요. 봉투 앞쪽에 참조 성구를 적은 후 인물들을 담아 보관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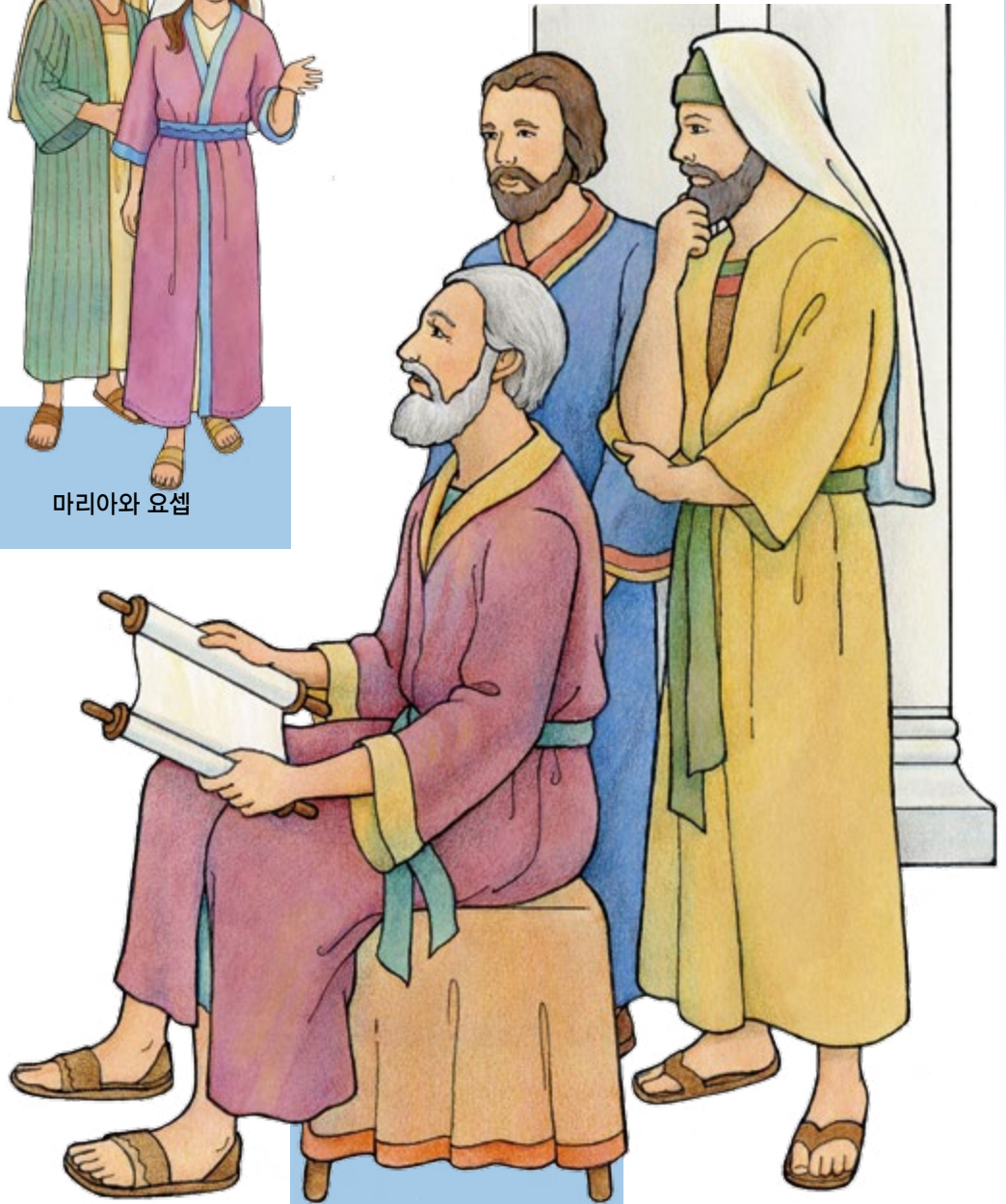
그림은 liahona.lds.org에서 더 인쇄할 수 있습니다.



12세의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



선생들

버스에서 드린 기도

미치 히메네스 라미레스
실화에 근거함

소 피아는 이제 곧 여덟 살이 됩니다. 소피아는 침례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기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소피아는 엄마와 함께 아빠의 직장에 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려면 차를 오래 타야 했습니다. 아빠의 직장은 다른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서 트럭으로 갈아타고, 마지막으로 택시를 타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던 길에 소피아는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버스에 탄 부부가 보였습니다. 몸이 아픈 아기는 큰 소리로 울어 댔습니다. 아기의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아기가 가여웠습니다. 아기의 부모님도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삽화: 케이티 맥디



소피아는 엄마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기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돼요?”

“물론이지.” 엄마는 흐뭇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아는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소피아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기를 축복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아기의

상태가 나아지고 울음을 멈추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소피아는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즉시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아기는 진정되었습니다. 울음도 그쳤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기 부모님의 얼굴에도 이제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피아는 마음이 따스하고 행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기와 아기의 부모님 덕분에 소피아는 행복했습니다. 소피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글쓴이는 멕시코에 산다.





해롤드 비 리
(1899~1973)
회장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군가 찾아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문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몇년 전에 저는 제 사무실에서
[매리온 지] 롬니[1897~1988]
회장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준수한 젊은이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형제님들, 저는
내일 처음으로 성전에 가려고 합니다.
저는 과거에 몇 가지 잘못을 저질렀으며,
감독님과 스테이크 회장님을 만나서 빠짐
없이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보이자, 그분들은
이제 제가 성전에 갈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형제님,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서도 저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누군가 찾아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문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모사이야서에 담긴 베냐민 왕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침례를 받고자
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된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크게
부르짖어 이르되, 오 공홀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적용하사
우리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하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게
하시옵소서. ……”

그들이 이 말을 하고 나자 주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신지라, 그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자신의 죄 사함을 받으며

양심의 평안을 얻으니”(모사이야서 4:2~3)

바로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 어느 곳에 있든,
죄를 회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능력이 닿는 데까지 보상과
반환을 했다면, 또 그 죄가 교회
내에서 여러분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합당한 권세를 지닌 역원에게
다녀왔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자신을
받아들이셨는지 확답을 받고 싶어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반성을 하면서
양심의 평안을 구하여 이를 찾았다면,
여러분은 그 징표를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의 회개를 받아들이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그와
반대로 생각하도록 유도하며, 이미
잘못을 한 번 저질렀으니 돌이키기보다는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설득할 것입니다. 이는 가장 큰 거짓 중
하나입니다. 용서의 기적은 악한 일을
멈추고 더는 반복하지 않는 모든 이에게
일어납니다. ■

“Stand Ye in Holy Places,” Ensign, July 1973,
122에서 발췌함.

통찰



삶이 힘들어질 때 어떻게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까?

“삶의 무척 많은 부분이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과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그런 후에 행복해지는 것을 선택한다면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

청년 성인

자주 함께 모일지며

성공적인 가족 평의회를 한 여섯 가지
원리를 소개합니다.



42쪽

청소년



48쪽

2015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본부 청년 및 청년 회장단이 교리와 성약
4편 2절에 관한 통찰을 나눕니다.

어린이

신약전서 읽기 목표

올해 신약전서에 나오는 구절들을 읽으면서
이 색칠하기 활동을 해 보세요.



66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